

높은 이혼율과 저출산, 일인가족시대 등의 현상으로 가정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이 중말의 시대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시편 128편 3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4월 30일 (토) 제 187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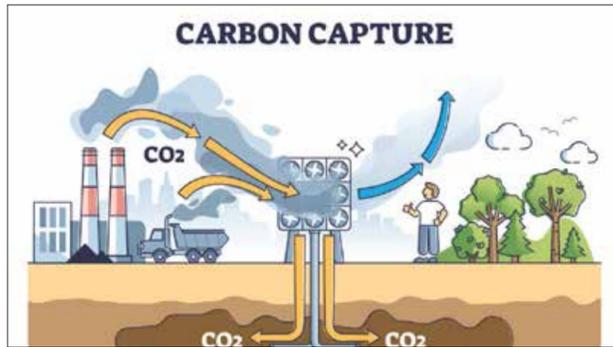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크리스천 주도 '가족우선주의' 기대

5월 가정의 달...코로나 방역규제완화 후 이혼율 폭증

경제적 위기 및 출산율 감소와 함께 결혼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수백만의 미국인은 중국인이 소위 말하는 '힐벗은 가지' 즉 친족이 없는 남성과 여성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힐벗은 가지'에 속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전염병, 사회불안, 개인채무변제 또는 경제위기와 같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힘들다. 부정적 변화에 직면할 때 이

들은 중년과 특히 노년기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남성과 여성은 결혼과 가족의 의미, 방향 및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종교가 없는 많은 미국인이 특히 그러할 것이다. 이는 미국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기후변화, '탄소포집'으로 해결한다!

BBC, 2050년까지 탄소중립위한 새 기술 CCS 위상 소개

물론 지금의 현상을 기후변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땅 덩어리 넓은 미국에서는 별 일도 다 있으나, 문제는 더 춥고 더 더운 날씨라는 거다. 지난 3월 31일, 미국 최대의 기상채널인 '웨더 채널'은 4월 날씨 전망을 이렇게 예측했다. "오는 4월은 봄 날씨를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뜻밖의 '한기'를, 또 어떤 이들에게는 때 이른 '무더위'를 선사할 것 같습니다."

미국 북서부, 중서부부터 중남부 지역은 북대서양 고기압이 차단돼 캐나다에서 남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평년보다 추워지고, 반면 남서부 지역의 경우 기압이 지속되며 건조해진 토양이 더 빨리 가열되기에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예측이었다. 그리고 4월이 왔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예측은 맞았다. 더 춥고 더 더워졌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찾아왔다. 온화할 것으로 예측했던 뉴욕 등 북동부 지역이 추운 정도를 뛰어넘는 엄청난 눈폭풍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선 2050년까지 '넷 제로(탄소중립)' 즉,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제로(0)에 가깝게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대기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양만큼 이를 다시 대기로부터 흡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탄소포집'이라고 부른다(What is carbon capture and can it really save the planet?).

유엔(UN)의 연구진은 현재 이대로라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2°C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이들의 경고처럼 정말 지구 평균기온이 2°C나 상승한다면 지구의 많은 지역이 살기 어려운 곳이 돼버릴 것이다.

연구진은 산림 조성과 같은 자연적 해결책과 함께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기술적 해결책도 언급했다. 이러한 해결책이 최악의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막는 핵심적 역할을 하리라 내다봤다.

(3면으로 계속)



거의 모든 일상을 되찾은 미국에서 이혼율 폭증 조짐이 일고 있다. 작년 9월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완화 이후 일부 주에서 이혼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지역이 캘리포니아 주다. 주 고등법원에 따르면 2021년 2월까지 감소세였던 이혼 신청 건수는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5개월간의 이혼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작년 봄부터 서서히 해제된 방역규제가 '이혼 촉매제'가 됐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관계가 틀어진 상태로 집에 갇혀 있다가 봉쇄가 풀리자 앞 다퉈 이혼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백신 접종률이 높고 규제해제 폭이 큰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플로리다 주에서 이혼율 증가가 뚜렷했다.

변호사 레슬리 발바라는 미국 전역에서 관찰되는 이혼 증가추세를 "폭발하는 댐"에 비유했다. 그는 "그동안 문제들이 사라졌던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며 "백신접종으로 되찾은 일상은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이혼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서도 한 줄기의 희망이 있다. '소울메이트'와 같은 결혼의 개념은 희미해지고 크리스천 주도의 '가족 우선적인' 결혼모델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단하고 안정적인 가족 우선적인 결혼환경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불안, 지속적인 질병 및 무능한 정부 등의 침울하고 힘든 세상에서 소울메이트의 신화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에게 더는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시장이 자녀 양육 및 교육, 가사, 가족사

업 또는 노부모를 책임져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고 있다. 따라서 지역교회의 지원 등의 헌신과 지역사회 지원이 필수적인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재발견하고 있다. 즉, 부부는 결혼에서 둘 사이의 감정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배우게 된다.

가족우선 모델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중시 한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된 가족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윤리를 받아들인 부부는 별거가 가능한 선택이라고 믿는 사람보다 이혼할

가능성이 적다. 또한, 서로에게 헌신적인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의심의 여지없이 결혼에 대한 보다 헌신적인 접근방식은 부부에게 더 큰 신뢰, 정서적 안정 및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며 행복하게 결혼을 지속할 확률을 높인다.

결혼이 더 중요해지고 자녀 출산의 선택권이 생김에 따라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비율이 증가해 많은 미국 어린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류승렬 목사 3면



푸른초장 강신용 목사 4면



교회선교의선순환 조용준 선교사 13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7

말씀가르기의거기 말씀가르기의거기 말씀가르기의거기

4세-14세 어린이 복음화를 위한 4/14 윈도우 운동 컨퍼런스 2022년 5월 2일 (월) - 5월 4일 (수) 2박 3일간 Anaheim Marriott Suites

공동주최 : OC 기독교교회협의회, OC 목사회, OC 여성목사회,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 장로협의회

발행인 칼럼

1세와 2세 사이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며칠 전 버지니아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했다. 미국 내 12개 이민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TICI(Thriving Immigrant Congregations Initiative) 모임이었다. 여러 주제들이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그 중에 역시 중요한 것은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1세대와 2세대가 같은 신앙고백을 하지만 삶과 문화는 사뭇 다른데 무엇이 다르며,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모든 이들의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심히 아름다웠다. 필자는 아쉽게도 모임 중간에 뉴욕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민 땅에서 세대 간의 문제는 이민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1세대와 2세대 사이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보는 이마다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지만 많은 이의 관점을 따르면 1세대는 "전통"을 귀하게 여긴다. 2세대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대 간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각 세대는 자기 자신에게 중요시 여기는 "전통"으로 일치를 또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일치를 주장한다. 물론 1세대가 2세대에게 이침없이 부여하는 "희생"과 2세대가 1세대를 높이는 "존경"은 서로 접어들지 않는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품은 세대 간의 차이가 고귀하여 마음을 울리고 눈물을 자아낸다.

1세와 2세 사이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1세대도 2세대도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라고 소리 높여 외칠 일이 아니다. 모든 세대가 겸손히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세대 간의 차이 보다, 세대 간의 문화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그것이 진정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세대 간에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언약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세대를 관통하는 것은 언약이다. 모든 세대는 언약을 받아야 하고, 언약을 누려야 하고, 언약을 계속해야 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출2:23-25). 각 세대를 공통으로 묶는 언약은 각 세대의 문화보다 앞선 가치이다. 상대적인 문화가 절대적인 언약에 앞설 수 없다. 언약은 각 세대를 일치하게 하지만 각 세대를 다양하게 만든다. 1세대와 2세대 사이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종교를 권력유지 수단화하는 푸틴!

CT, 푸틴의 정치가 어떻게 교회의 증인됨을 위협하고 있는지 분석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자유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기에 미국 북음주의자들은 이것이 또 하나의 동떨어진 외교정책의 문제라고 결론짓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푸틴주의는 지정학적 위협 그 이상이다. 그것은 또한 종교적 위협이다. 그리고 북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질문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길이 미국 교회의 길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는다. 나토는 유럽 질서의 안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재발을 우려하며 잔류

종인 미국인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독일인들은 그들의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에너지 위기로 이어지거나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 사태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에서 공공신학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러셀 무어는 푸틴의 정치는 교회의 증인됨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How Putin's Politics Threaten the Church's Witness).

2018년 우크라이나정교회가 러시아정교회로부터 독립한 후부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The Pillar(미국의 가톨릭 잡지)에서 JD 플린과 에드 콘돈은 우크라이나 가톨릭과 정교회 지도자들이 러시아정교회에게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에 대한 푸틴의 군사적 연동에 공모한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푸틴을 적이라는 같은 시각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부 다른 사람들은 그를 기독교적 가치들의 수호자로서 권위주

핵심적 원리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가 아니라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이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전

하다. 그는 러시아정교회를 조심스럽게 교화시켜 군대에 봉헌한 러시아정교회 성당에 자신과 스탈린, 그리고 크립만도 침략을 기념하는 모자이크를 새기는 것을 승인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

게다가 러시아 당국은 소수 종교, 특히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북음주의 교회들과 국외에서 온 북음주의 선교사들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해왔다.

소련의 붕괴가 끔찍한 재앙이었다고 밝힌 전직 KGB 관료 출신 푸틴은 왜 교회와 협력을 원했을까? 아마도 그는 칼 마르크스의 견해에 동의해 종교가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기독교적 가치관들" 우선시·낙태금지를 인간 생명 보호보다 인구감소 억제책 종교가 정치적 권력유지(민족주의, 국가주의)에 유용한 도구될 수 있다고 믿어

미국의 북음주의자들에게도 진짜 질문들이 있다-푸틴이 종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보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것을 모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몇 년 전 트럼프 시대의 격동이 있기 전 나는 부활절 아침에 방송되는 비기독교 전 미국 뉴스 프로그램에 다른 북음주의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 주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우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즉 예수님이 죽음에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적 스트롱맨으로 옹호했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푸틴의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른 정도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적어도 일부 북음주의자들에게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던 더 큰 불일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들"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종교는 민족주의와 국가의 명예를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출 때 유용한 것이 사실이다. 종교는 이미 열정적인 북음주의 감정과 외부인에 대한 혐오를 초월적이고 의심할 여지없는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들은 마키아벨리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말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낙태 이슈를 보자. 러시아의 낙태율은 높을 뿐만 아니라 친정부 세력들이 "친생명"과 유사한 견해를 피력할 때도 그것은 연약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인구감소를 억제하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국에 있는 고아원과 "소아병동"을 채우고 있는 아이들을 다루는 것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구소련의 활발한 입양문화가 없었다면 이런 연령층의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제도권 보호 하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약물남용, 성착취, 그리고 자살의 무서운 삶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암울한 현실이 모든 사안을 상처 입은 러시아의 국가적 자존심을 달래며 지정학적 힘의 게임으로 보려는 푸틴을 미국과 서방국가들에 의한 고아입양을 막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것으로부터 막지 못했다.

만약 이런 경향성이 구소련에만 제한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뿐히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철의 장막 뒤에 있는 미래를 발견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목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9,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한빛장로교회 담임목사청빙. 한빛장로교회는 California El Monte에 소재한 미국장로교(PCUSA)에 소속된 4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담임목사님이 정년퇴임 하시어 제3대 담임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격: 1) 학력: 정규신학대학원(M.Div.이상)졸업 하신분 2) 경력: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5년 이상 시무 하신분 3) 소속: PCUSA 소속이시거나 가입이 가능한분 4) 언어: 이중언어(한국어, 영어) 소통이 가능한분 5) 신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분. 제출서류: 1) 이력서(PCUSA Form PIF, 교단 Email을 통해서, 또는 자필 이력서) 2)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신학대학 졸업 증명서 사본 각 1통 3) 추천서2통(목사, 장로 추천서 각1통,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4) 최근(6개월)실교 2회분(동영상File 또는 Link) 5) 신앙고백서 1부 6) 목회계획서 1부 7) 본인및가족 소개서(가족사진 첨부). 제출마감일시: 2022년 5월15일. 우편: Divine Light Presbyterian Church (PNC) 11608 Valley Bl. El Monte, CA 91732 email: plpcpusa@gmail.com. 기타: 1) 제출서류는 보안에 유의하며 청빙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문의는 email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빛장로교회 청빙위원회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주도...

(1면에서 계속)

가족 우선적 구조의 결혼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서적 교제는 결혼생활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하고, 이를 유지하고, 다른 가족구성원을 돕고, 서약을 지키는 것을 존중한다.

특히 교회는 결혼부터 장례식 때까지 지역사회에서 가정의 구성원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가족연구소의 연구

에 따르면 종교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훨씬 더 나은 결혼생활을 즐길 가능성이 더 크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미국인들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비록 세상에서 많은 것이 황폐해지고 한동안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지만 이제 일상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결혼한 가정의 장래는 밝아 보이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기 위해 결혼 또한 더욱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거로 예측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특히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왕이든 서민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는 행복은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가정 속에서 찾는 행복이 가장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가족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의미한다. 부부는 신앙을 공유하며, 부모는 신앙을 물려주고, 자녀는 믿음을 물

려받는다. 신자의 가정은 신앙을 공유, 계승하는 터전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의 가정은 교회의 모습을, 가족은 교우의 성격을 가진다.

신자의 가정은 교회를 조직하는 기반 요소이며, 신자의 가족은 성도를 형성하는 기초 성분이다. 그런데 신자의 가족이 신앙을 공유, 계승하려면 같은 범위로 성경을 읽고, 동일한 설교를 듣고, 공동의 주제로 기도하며, 신앙서적을 함께 읽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때 5월은 진정한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고 365일 동안 이어질 수 있다.

기후변화, '탄소포집' ...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과연 좋은 길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환경운동가들도 있다.

앞서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는 일부터 대기 중의 탄소를 땅속에 고정하는 무경운 농법에 이르기까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자연적 해결책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다 1970년대 이후 '탄소 포획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 등 더 빠른 제거가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이 등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CCS 연구 부문을 이끄는 사만다 맥컬록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흔한 방법은 화석연료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이다. 그 후 파이프라인이나 배를 통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고로 옮긴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배출된 가스를 용매가 들어있는 흡수제와 결합시킨다. 이산화탄소만 흡수하고 나머지 가스는 배출하기 위해서다. 그 후 열을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용매를 분리한다. 이후 용매는 재활용하고 회수된 이산화탄소는 깊은 땅 속

에 있는 저장고로 이동된다. 그러나 일부 환경론자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러한 포집기술로 화석연료 배출자들의 관심이 실제 배출량을 줄이는 것보다 당장 눈앞의 빠른 해결책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기후 관련 감시단체인 '글로벌워치워치'는 2021년 CCS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C 이하로 유지하는 목표 달성에 실제로 도움이 되

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를 이끈 도미니크 이글턴은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을 안정적이고 제때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면피부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탄소배출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석연료 사용중단"이라는 게 이글턴의 주장이다.

CCS 옹호자들은 인류의 에너지 시스템을 개조하고 2030년 혹은 2040년까지 추가 배출량을 줄인다 해도 여전히 기존에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이 제거해야 할 "역사적 탄소"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우선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아니

면 우선 탄소포집에 집중투자를 해야 할지에 관한 질문이다.

이 두 방식을 병행하자는 의견도 있다. 파트리시오는 "어찌됐든 CCS를 통해 지구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라면서 "CCS를 생물다양성 무시로 묘사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 나와 같은 CCS 옹호론자들은 생물다양성을 소중히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맥컬록은 탄소포집에 대한 IEA의 최신분석이 "모든 해결책을 모두 고려해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2050년에 넷 제로를 이루기 위해선 에너지를 사용하고, 운송하고,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야심찬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선 여러 해결책이 있어야 하죠.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증대, 수소 기술사용 확대 등과 더불어 탄소포집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종교를 권력유지...

(2면에서 계속)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가톨릭, 그리고 일부 복음주의 개신교를 포함한 종교적 보수파들이 헝가리의 권위주의적 스토폴만인 빅토르 오르반과 동맹을 맺었다. 자유주의 논객 매트 웰치가 주목한대로, 이 헝가리 총리는 "미국식 기독교의 이상한 챔피언을 만들었다."

웰치는 "헝가리에서는 낙태가 논란의 여지없이 합법이며, 국민들은 특별히 종교적이지 않으며, 오르반은 감히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교회에 대해 악랄한 통제를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웰치는 동유럽의 스토폴만들에 대해 매력력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만약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과 그것을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작은 충돌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작은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이 권위주의 유혹의 또 다른 더 큰 문제는 복음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교회가 단순히 국가의 안정과 자긍심을 위한 문화적 수단에 불과하다면 독재자들이 그것을 조작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산 돌'로 구성된다면(벧

전2:4-5), 기독교가 보여준 현 문명의 일련의 가치들에 관한 외적 순응은 비참할 정도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내세우는 곳에서는 이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가 자국민들에게 자신의 적들을 독살한 것으로 알려진 푸틴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를 축복하고 있을 때는 더 더욱 사실이다.

후자의 경우 교회의 증인된 자체가 위태롭다. 왜냐하면 피에 굶주린 행동을 외면하는 종교는 객관적인 도덕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조차 믿지 않기 때문이며,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평화만 갈구하고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종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길을 지켜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진짜, 혹은 감지된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위해 바로 혹은 바라바 혹은 가이사 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언어가 됐건 "Nyet"(러시아어, 영어로는 no)라고 말하는 법을 기억해야 한다.

[알림] 본지 4월 16일자는 정기휴간에 따라 발행되지 않았습니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류영렬 목사 (양성분중앙장로교회)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왕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 특별한 반지를 하나 만들어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내가 승리했을 때는 기쁨에 취해 자만하지 않도록, 또한 절망에 빠져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보석 세공인은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만족시킬 만한 글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 준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감 짜 야아보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 마디는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 교만한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는 용기를 주는 한 마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랜터 윌슨 스미스(Lanta Wilson Smith) 시인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첫 구절입니다.

"거대한 슬픔이 거센 감물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으로 스며들 때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갈 때 힘겨운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네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 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화려해도 바람처럼 지나갈 날이 오고 천하를 얻은 기쁨도 사라질 순간이 옵니다. 눈물로 온 밤을 지새우는 슬픔이라 해도 사라질 때가 오고 호흡하기 어려운 고통이라 해도 이것 또한 지나갈 순간도 옵니다. 가운데 아름다운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영화란 들의 꽃과 같이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해도 햇살 앞에 아침 이슬과도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옳은 말입니다. 어린 시절 추운 날 유리창에 입김을 불고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곤 한 적이 있습니다. 햇살 앞에 그렇게도 빨리 입김이 사라지고 글자도 사라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 아침 안개 같은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저녁에 피어오르는 차마 끝의 연기 같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좀 더 찬란하게 반짝인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며 반짝임이 덜하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세끼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어려우면 두 끼의 식탁을 앞에 두고도 감사하는 것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땀 흘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하고 기뻐해도 삶이 짧는데 원망과 불평의 말로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며 보내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있습니까? 고대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삶 속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시39:7).

길어져가는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이 우울증과 대면기피증 그리고 불안감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삶에 쓰나미 같이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제 팬데믹도 조금씩 줄어드는 시점에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과거의 역사라 해도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종착역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정거장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꿈을 꾸고 땀 흘리고 달려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양하게 겪었던 아픔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역경을 대할 때마다 고대의 현자가 외쳤던 고백,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읊조리며 심호흡 크게 하고 다시 마음 가다듬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빛이 있는 터널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삶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늘을 향해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preachchrist@kpc.org



36th Anniversary

달라스 캠퍼스 편, 입학 안내

Dallas Site에 오픈하는 과정

Dallas 지역에서 등록하는 학생들을 위한 1-20 직접 발행

ESL Program ESL, Aviation English

Pilot Certificate(FAA) 조종사라이센스, 정비사라이센스

Diploma 신학, 기독교교육, 크리스찬카운셀링, 선교, 리더십

Degree Programs 학위과정

B.A. 신학, 기독교교육

M.Div. 목회, 선교목회, 상담목회, 교육목회, 목사리더십

D.Min. 카운셀링, 교육, 선교, 목회신학, 목사리더십

On-line Programs or Main Campus

국제항공 대학(원) BS, MBA, Ph.D.

경영 대학(원) BA, MBA, Ph.D.

국방 대학원 MBA, Ph.D.

교육 대학원 MA TESOL, MA Education, Ph.D.

리더십 대학원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상담심리 대학원 MA, Ph.D.

음악, 문화예술 대학원 MM, DMA, Ph.D.

신학 대학(원) BA, M.Div, D.Min, Ph.D.

학교소개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정규대학교 인준 USDE & CHEA

•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CHEA) www.chea.org

• ABHE - Accredited Status

• 국제비즈니스 학점 인정기관 (IACBE) Educational Member.

• 국제 항공 안전협회 ISASI 회원대학교.

• NC-SARA (www.nc-sara.org) 인준대학교

• Midwest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MIRI) 연구소



Midwest University 국제항공대학

항공경영학사 과정

항공경영, 조종사, 정비사, 항공운항사, 승무원

FAA Certificate - 국제 조종사, 정비사 라이선스 과정

MBA - 항공 안전보안

Ph.D. - 국제항공 경영 리더십

Midwest University- Dallas

4849 Spartan Dr. Denton, TX 76207

usa@midwest.edu

www.midwest.edu (636) 327- 4645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연구원 교환교수, 인턴십을 위한 DS-2019 자체발행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십시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사도였고 믿음의 친구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지나치게 다똥을 벌였던 것 같다. 그렇게 밀접했던 두 친구 사이를 분리했던

것은 격렬한 불일치였다. 이와 같은 예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위대한 성도들도 서로 불일치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들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성도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로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것이다. 성경을 보면 삼손과 다윗을 비롯한 많은 훌륭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큰 죄에 빠졌다. 그리고 욥과 예레미야는 끊임없는 환란 속에 그들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죽기를 소망하기도 했다. 엘리야와 요나도 삶에 지쳐서 죽음을 원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넘어진 사람은 없었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도 없었다.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났다면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모두 연약하여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낙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을 보면 모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일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본다. 물론 그런 아름다운 열매는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셨던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러한 그들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살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거듭 밀려오는 과도처럼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다. 올해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4월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지나온 3월 달 동안 어려운 일을 연

속적으로 당하며 이번 한 해는 망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3월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여덟 달이 남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여덟 달이 소망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이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아이들이 경기하는 리틀리그 야구경기에 갔다고 한다. 그는 선수 대기실(Dugout)에 있던 한 소년에게 점수가 얼마인지 물었다. 그 소년은 18대 0으로 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때 그 남자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야. 굉장히 낙심해 있겠구나!” 그때 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가 왜 낙심해야 할까요? 이제

게임을 1회로서 우리는 아직 타석에 서보지도 않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스우면서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18대 0으로 경기를 지고 있지만 자기들의 순서가 오면 그보다 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삶엔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특별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단지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펼칠 것이라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강신용 목사
(뉴욕사랑의동산교회)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요18:37).

는 세 번씩이나 무죄를 선언한 피의자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던 빌라도의 처지와 그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의는 버리고 의를 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둘째, 진리와 세상 것 중 진리를 택하라

빌라도는 진리를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 진리에 대해 잠시 관심이 기졌지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진리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진리 자체인 메시아를 정죄하므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진리이신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지만 진리이신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

교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훼손한 베드로의 외식을 지적하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표준 새번역본은 이렇게 기록한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감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사람인데도 유대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사람처럼 유대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바울의 행동은 개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진리를 바로 전하면 설교가 너무 세다느니, 율법적이라느니 하면서 듣기 싫어한다.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선호한다. 그러나 진리는 양날 가진 검보다 더 예리하고 날카로우며 심령을 깨고 쪼개어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영혼 육이 고침 받고 새로워진다. 진리에 조미료를 섞어 듣기 좋은 설교의 유혹을 뿌리치라.

한다.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면 교인들이 떠날까봐 진리에 주의를 섞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면 듣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는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해 영혼들을 지옥에 떨어뜨린 불법의 죄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마7:23).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10:28).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때에도 당국에서 금지했던 복음을 가감 없이 재판관들에게 전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넷째, 양심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 중 양심의 소리를 택하라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

미해지고, 심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믿음도 파선시킨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딤후1:19).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 대못 박는 일을 중단하고 손에 있는 대못을 버리라

빌라도는 만민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까지 들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는 쪽을 택했다.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 죽으시겠지만 빌라도는 굳이 메시아를 못 박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악역을 맡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이다. 진리를 알고 은혜를 받은 자가 불순종을 일삼는 것을 말한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히6:4-6). 진리를 알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이제는 죄와 타락의 생활을 청산하고 의와 진리를 중심으로 생활을 바꾸어야 한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대놓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몹쓸 행위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회개해야 한다.

결론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죽음으로 만민의 죄를 속량하시어 그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빌라도는 의와 불의 중 불의를 택하고, 진리와 현실 가운데 현실을 택했으며, 양심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 중 사람의 소리를 택하므로 죄 없는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천인공노할 죄를 지저르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다.

당신이 진실로 믿는 자라면 항상 의를 택하고 진리를 택하는 삶을 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사람의 소리를 따르지 말고 양심의 소리를 따르라. 또한 가지, 불순종의 대못으로 주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파멸적인 짓은 그만하라.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대못을 던져버리라. 믿음으로 받은 성도를 축복한다. aerimkang@hotmail.com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요한복음 18장 33-40절

이 있어도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남을 속여 얻는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다. 가난한 자에게 비싼 이자를 받는 것도 불의한 소득이고,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불의한 것이다. 미워하는 것도, 성도 간에 송사하는 것도 불의한 행동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불의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전6:9).

이어서 다음절까지 구체적으로 불의한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 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 노릇하는 자나 동성애를 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6:9-10). 진정 하나님나라를 원한다면 불

면 지옥을 얻는다. 진리를 아는 것은 생사를 가르고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일에 마음을 빼앗겨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 것들을 택한다. 진리를 버리고 세상 것만 택하는 자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가라지와 죽정이일 뿐 구원백성이 아니다. 평생 천국 문 앞에서 늘 서성거리지만 할뿐 천국 문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진리를 택하고 진리를 사수하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의 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의 부정함 음식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런 음식규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으므로 베드로는 이방인 형제들과 음식친

그런 혼합된 진리로는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한다. 빌립보 성의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진리의 설교에 인생이 바뀌었고, 노예상인 존 뉴턴도 단 한 번의 말씀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새사람이 되었다.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은 진리를 각색하고 윤색하여 죽정이를 양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람과 하나님 중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구세주를 십자가에 내줌으로 천추의 한을 남겼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죄 없는 예수님을 무죄 석방했을 것이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우매자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설교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야

다고 세 번이나 말한 것은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사람의 소리에 반응했다. 그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며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한말(마27:24) 역시 양심의 소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소란한 사람들의 놀려 불의한 재판을 하고 말았다.

양심이 소리를 발하면 아무리 큰 이익이라도 포기하는 자가 되라. 이방인의 마음에는 본성에 도덕적 양심이 들어있고, 유대인의 양심에는 율법이 더 들어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양심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믿음이 추가된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각각 그 차원이 다르며,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죄가 된다.

양심의 소리를 거스르지 말라. 그것을 계속 거스르며 무시하면 양심의 소리는 점점 희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실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최근에 목회를 맡아 사역하는 젊은 목사입니다. 최근에 리커스토어를 새로 인수한 교회의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 난처해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월빙톤에서 최 목사

A: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일어나는 난처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교회의 남전도회에서는 리커스토어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리커스토어는 미국에 온 한인들이 많이 찾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는 크리스천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리커스토어는 다른 비즈니스보다 이익도 많아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초신자이거나 믿어도 성경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교인들이 새로운 사업체를 열므로 가서 예배를 드려 축복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리커스토어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며 축복하는 것은 참으로 난처한 일입니다. 술을 많이 팔아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해독성을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잠23).

리커스토어는 크리스천으로 적합하지 않은 직업

사실 저도 목회할 때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탁을 받아도 별로 대답을 안 하고 심방을 피하고 안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대개 눈치를 채고 더 이상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과거 어느 교우는 2-3번을 계속 부탁하기에 더 이상 피하기가 어렵다 싶어서 가서 참고 뒤에서 잠깐 설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업의 복은 구하지 않고 주여 이 직업은 크리스천으로 적합하지 않은 직업이니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팔고 다른 더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한 것은 기도 후에 그 성도가 큰 시험을 받고 교회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었기에 저는 매우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 보지 않고 믿음으로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우는 안 그래도 자기는 신앙 양심상의 죄책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시원하다며 가능하면 일년 안에 정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였습니다. 결국 1년 후에 목사의 말을 듣고 정리를 했습니다.

리커스토어를 해서 안 될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해보자면 1)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직업입니다. 모든 직업이라고 다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술파는 것이나 창녀를 통해 포주역 할 하는 것이나 여자가 돈 된다고 톱살롱 다니는 것은 불의의 재물에 속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 “창기의 번 돈이나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잠언 16장 8절에서 잠언기자도 말 합니다. “적은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직업을 잘 선택해야 하고 직업선택 시에 마음에 거리가면 목사님과 먼저 상의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2)위험한 직업입니다. 리커스토어는 강도나 도적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살해되기 쉬운 매우 위험한 직업입니다. 권총강도나 무장강도를 만날 위험이 매우 높은 직업입니다. 3)주일성수하기도 어려운 직업입니다. 아침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일년 무후에 거의 하루 20시간을 일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성수 못하는 직업이고 피곤에 지쳐 병들기 쉬운 직업입니다. 적게 벌어도 깨끗한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미래는 주님앞에 부끄러움 당할 일들 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없다

현재, 자신의 무엇을 바꾸며 준비해야 할까? 우리 자신을 성경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바꾸어 가야 한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어야 한다.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도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과 가문의 꿈을 꾸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로서 성경에 이르는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서로 책임지고 싶지 않은 약함이 저들 가운데 있음을 본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신앙

또한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음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 일반화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종교란에 기독교라 쓰지만 그렇게 쓰는 자신도 그것을 읽는 타인도 그 사람의 신앙은 단지 '기독교'일 뿐 진짜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참된 기독교 신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서로 인정하며 지낸다는 것이다.

배우출신 장로와 권사 부부가 간증 프로그램에 등장해서는 은혜를 많이 끼쳤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장로님의 딸이 술집 이름을 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딸들이 많았다. 장로님 집에서 술 광고 찍는 영상을 만들고, 그런 방송에 권사가 출연을 해서 술잔을



세상일도 잘 준비된 사람이 좋은 열매를 거두듯이 신앙생활도 잘 준비된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됨을 본다. 혹자 가운데 '나는 이만큼 준비가 잘 되어있는데 하나님이 잘 몰라주시는 것 같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런 말은 존재할 수 없는 말이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와 축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불꽃같은 눈동자로 준비된 자를 찾으신다. 엄밀히 말하면 직접 준비시키셔서라도 쓰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을 감당했던 모든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나는 부족하는데, 주님이 나의 능력 그 이상으로 사용하셨습다'라는 말씀이다. 맞는 말이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공통으로 드러나는 신앙고백적인 언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준비, 그 이상으로 사용

작은 경험을 이야기해보면 신학교에 처음 입학하고서 순전히 의리(?)로 교인 없이 개척하는 목사님 가족을 따라 우리

지 못한 일이었다. 개척에 대해서는 정말 1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고, 밀리고 밀려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한 것이 개척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런데 이제 철이 조금 들어 세월의 연한이 조금 흐른 후에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준비과정 중에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 맨바닥에 헤딩하던 개척교회 3년과 2년 반 동안의 강도사 특별훈련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아무래도 이민교회 한 곳에서 올해 20년을 목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러한 믿음의 해석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본다. 더불어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주님 앞에 새롭게 담금질된 사상과 생각을 한가지이다. 준비된 만큼 주님이 쓰시기에,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이들은 어쩌면 평생을 준비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은 자기를 사랑하며/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교만하며/웨방하며/부모를 거역하며/감사치 아니하며/거룩하지 아니하며/무정하며/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잠소하며/절제하지 못하며/사나우며/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배반하여 팔며/조급하며/자고하며/쾌락을 사랑하는 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3:1-5).

말세지말의 현상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임을 알게 한다. 말세를 표현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데, 오늘날은 이런 경건의 모양마저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자신의 직분이 '집사/권사/장로/목사 등'이라고 하면 직분 때문이라도 자리를 지킬 줄 알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기가 싫으면 모든 것이 싫어지고 자신이 좋으면 모든 게

준비 중의 준비

준비된 만큼 쓰시는 분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능력과 기술과 힘을 준비해야 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주님이 이 마지막 종말시대에 원하시는 것은 '주님오실 날을 예비하라'는 것이다. 종말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그 주님 뜻을 일에 잘 준비되어 있는가?'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혼인잔치 비유도 '등불의 기름준비' 여부가 슬기로우며 미련함의 기준이 되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며 기름준비 잘하며 주를 기다리는 열 처녀가 교회 성도인 우리를 말한다고 할 때,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잘 예비함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말의 때를 지나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다.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종말의 시대를 설명하는 말씀인 디모데후서 3:1-5을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 뜻을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말씀한다.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이에 부합되지는 않은 지 돌아보며 준비해야 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 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사람들

줄게 보이는 어린아이만도 못한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이 유행하기 때문이다. 싫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교회가 힘들어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그렇게 하고픈 대로 하더라는 것이다.

자기애(愛)가 지나친 것은 이기적인 교만이며, 마침내 주님의 책망을 받는 첨경이 될 따름임에도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자신의 소견을 따라 삶을 경영해가더라는 것이다. 이제 정 말 경건의 모양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다, 돈 앞에서는 신앙도 없다. 부모도 형제도 부부도 없는 것을 본다. 최근, 한국에서 보름을 8개나 들어 두고는 수영 못하는 남편을 계곡물 속에 빠뜨린 아내가 있었다. 기가 막힐 일이다. 그 들뿐이겠는가? 돈의 힘 앞에서 무력해지는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본다. 장로이고 권사여도 비즈니스 문제가 닥치면 주일성수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가는 것을 본다. 자신이 하고 싶으면 은혜이고 하기 싫은 것은 모두가 율법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만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 속에 없는 것 같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이다. 아름다운 창조질서를 무너뜨린 3:1-5을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 뜻을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말씀한다.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이에 부합되지는 않은 지 돌아보며 준비해야 할 것이다.

들이키는 딸과 함께 신나는 입담을 내어놓는 것이다. 처음에는 눈이 의심스러웠다. 아 저분이 속한 교단에서는 장로와 권사 부부가 저렇게 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뜻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된단 말인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체는 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며 돈을 벌거나, 다른 사람의 등을 치는 사기 도박 강도 등의 일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천금을 번다하여도 천한 직업일 뿐이다.

착각과 오판

그러면 종말시대에 합당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착각과 오해 때문이다.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 설마 하나님이 날 생명록에서 빼내었을까? 등등의 설마/설마하는 삶의 방식이 종말시대 등불 준비를 막아버린 것이다. '설마, 설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재 없는 미래'를 꿈꾸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기름준비 없이도 미래의 신랑을 맞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 지금을 보면 훗날을 알 수 있다. 현재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마지막도 어떻게 될지를 능히 알게 된다. 지금 나의 현재 모습속에 미래 나의 모습이 잉태되어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나의 미래를 품고 있는 시간이다.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오관하지 말아야 한다. 신앙은 항상 순간순간 결단하는 것이다. 지금 준비하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종말시대의 준비

- 말세지말, 회색지대

부부 두 사람과 여섯 명에서 개척을 했다. 3년간 대구에서 부산까지 통학을 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다보니 공무원이었던 집사님이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사역을 감당했다. 이것이 너무 힘들었던지 첫 아이를 유산하기도 하면서 3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규모 있는 교회로 옮겨서 행정과 목회전반을 배우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신 나머지 아까지 천명되는 교회의 유일한 부목사 자리로 초임 강도사인 나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새로 부임하게 된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부목사님의 신학사상이 조금 특별했던 것이다. 성경에 손을 넣고 축도하라는 법이 없다면 손을 들지 않고 축도를 감행한 것이었다. 결국, 부목사님은 잘렸고(?) 그 자리에 성경을 가지고 따지고 힘들게 하는 목사급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강도사를 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역이 너무 과중했던 것 같다. 거의 매일 밤 12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가는 강행군을 해야 했었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면서 본래 하고자 했던 유학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다.

유학의 비전과 함께 그 내면에는 어려운 목회현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절반은 되었던 것 같다. 실제 담임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기관목사를 꿈꾸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한인이 2천명도 안 되는 곳에서 이민교회를 개척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무뇌(無腦)의 시대

세월이 참으로 허수상하다. 상식도 논리도 통하지 않을 이 상한 것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범죄자가 예쁘면 그 어떤 행악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며 이런 일부의 무뇌적 일탈에 동조하는 이들이 모여들...

범죄자가 예쁘면 그 어떤 행악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며 이런 일부의 무뇌적 일탈에 동조하는 이들이 모여들...

파가 적지 않다고 평가되는데 그가 한창 여론의 중심에 서있을 때도 그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잘 생각해...

오늘의 제목인 무뇌(無腦)는 '생각이 없다'로 해석할 수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법이나 상식이 적용되는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용모에 있다...

지난 주 부활절을 지났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하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가 지신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를 판 것은 늘 그를 따르며 선생이라 불렀던 제자 중 하나였고, 죽기까지 다짐하며 그를 따르겠다고 제자는 그를 세 번이나 부인했다.

그가 지신 십자가는 그를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를 아우르는 구원의 담보였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그 증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잘난 사람으로 딱 차있...

다. 못난 사람이 거의 없다. 잘난 사람은 어떤 기준일까? 이치와 상식과 논리를 적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잘난 사람들이 왜 무지할까?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였다. 잔치가 한참일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항아리에 물을 떠다 채우라고 하셨다.

렸어도 그를 옹호하고, 잘 생겼기 때문에 위선자에 실패를 반복해도 그를 지지하는 것과 살아 있지 않은 죽은 것들로 자신이 만든 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믿을 뿐 아니라 복을 빌기도 하는 그 잘난(?)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며 배역할 뿐 아니라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고 고도 하지 않는다.

자란 자들의 무지가 무뇌를 부추긴다. 생각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실 것이다. 이를 중국에서는 메이유(沒有)라고 한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엘라베마주 '미성년자 성전환과...' 금지

엘라베마주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와 성중립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케이 아이비 엘라베마주지사는 지난 8일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화장실과 탈의실을 생물학적 성별로 구분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 SB184는 의사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을 처방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두 번째 법안인 HB322는 공립학교에서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을 생물학적 성별로 구분하도록 요구한다.

엘라베마주의회는 "미성년자에게 호르몬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은 골밀도 감소 등 수많은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미증명의 과학'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성명에서 "아이들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며 "우리는 아이들이 삶의 취약한 단계에 있을 때,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급진적인 약물과 수술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오늘날의 사회적 압력과 현대 문화로 우리 젊은이들이 직면한 매우 현실적인 도전들이 있다"며 "주님께서 당신을 소년으로 지으셨다면 당신은 소년이고, 당신을 소녀로 지으셨다면 당신은 소녀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북한의 기독교 지우기

선교사들의 흔적을 지우고 공로를 왜곡하는 등 북한 정권의 '기독교 지우기'가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몰래 예배를 드리던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박해도 심해지고 있다.



1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보통강변에 조성한 고급주택구역인 '경부동'을 완공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11일 크리스챤리티투데이 등에 따르면 기독교 재단인 더 서번트 파운데이션(The Servant Foundation)은 익명의 기부자들로부터 1억 달러를 기부 받았다.

증언이 나왔다.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VOA에 "평양 경부동 고급 주택구역의 위치는 옛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했던 평양외국인학교가 있던 자리"라며 "2년 전까지 보존됐던 이 역사적인 건물 일부와 부지가 주택 건설로 영원히 사라져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브라운 교수의 외조부와 부모는 과거 한반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 특히 호남신학대 설립자인 아버지 조지 톰슨 브라운 선교사와 어머니 메리 하퍼 브라운 선교사 모두 평양외국인학교 출신이다.

1900년 문을 연 평양외국인학교는 1940년 폐교될 때까지 동아시아에 파송된 서구 선교사 자녀들이 유학했던 기숙학교였다.

앞서 북한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달 25일 '선교사의 딸을 쓴 승냥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야수적인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했다"는 내용의 비난성 글을 게재했다.

이 같은 활동은 북한의 내부 결속과 통제 강화를 위한 체제 유지 수법이라는 분석이다. 오픈도어스USA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올 초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북한 기독교인들을 더욱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미디어에 대대적 '복음광고'

미국의 한 기독교 재단이 1억 달러를 들여 대대적인 복음광고 캠페인에 나섰다.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다시 알리자'는 취지에서다.



11일 크리스챤리티투데이 등에 따르면 기독교 재단인 더 서번트 파운데이션(The Servant Foundation)은 익명의 기부자들로부터 1억 달러를 기부 받았다.

기부금을 복음광고에 쓰기로 한 재단 측은 지난해 기독교 기반의 마케팅 대행사 헤이븐(Haven)에 캠페인을 의뢰하면서 "너무 많은 미국인이 기독교를 떠나고 있다. 또 더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캠페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헤이븐의 공동설립자이자 비영리 마케팅 분야 최고 전문가인 빌 맥켄드리는 "예수는 자신만의 언어와 스토리텔링으로 메시지를 전하셨다"면서 "농부들에게는 농사 이야기로, 어부들에게는 물고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만인 언어와 스토리텔링으로 메시지를 전하셨다"면서 "농부들에게는 농사 이야기로, 어부들에게는 물고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미디어에 꼭 빠져 있는 지금 이 시대엔 미디어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복음광고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는 '히겟즈어스(He Gets Us)'다. '예수는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데, 핵심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는 지금 우리가 겪는 온갖 고통과 아픔까지 다 아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캠페인의 특징은 공격적 복음 제시보다는 먼저 '공감'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을 택한 배경은 사전 조사 결과, 미국의 성인 절반 이상이 종교적 회의론자, 또는 문화적 기독교인(예수는 믿지만 적극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기독교인)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당신은 차별받은 적 없었나요? 예수님이 차별 받은 적 있습니다" 같은 짧고 강렬한 문구의 메시지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옥외광고판, TV와 라디오 등에 노출한다.

이들 광고를 클릭한 이들은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도록 해 댓글로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또 성경 앱인 '유버전(YouVersion)'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고, 기도나 격려문자 메시지도 받을 수 있다.

동유럽 UMC연회, 탈퇴후 보수교단 합류

동유럽 연합교회(UMC, United Methodist Church, UMC)의 한 지방연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새로운 교단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불가리아-루마니아 임시연회는 이달 초 만장일치로 UMC를 떠나 5월 공식 출범하는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GMC)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연회를 감독하는 중남부유럽중앙연회 의장인 패트릭 스트라이프(Patrick Streiff) 감독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시도는 교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스트라이프는 "연회 감독으로서 교회법에 분리에 대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표는 불가능하다. 연회 구성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회원들은 나의 감독 없이 회의를 계속했고, 다니엘 토폴스키(Daniel Topalski) 감리사를 의장으로 선출해 결의안을 논의하고 공개 투표해 (분리를)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루마니아 UMC와 함께 교단을 탈퇴하는 상호존중적인 방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불가리아 교회가 교단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중남부유럽중앙연회와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독교인은 왜 백신 접종 거부?

직원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공공 기관과 기업이 많다. 그중 일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여론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미국 성인 1만441명을 대상으로 종교를 지닌 일부 직원 대상 코로나 백신접종 예외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 백신접종 거부를 위한 종교적 이유가 단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반대 생각을 가진 미국인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조사에서 약 67%에 달하는 미국인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코로나 백신접종을 맞지 않으려는 직원은 종교를 단지 백신접종 거부 위한 핑계거리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반면 백신접종 거부 직원의 종교적 신념이 진실한 것으로 본다는 미국인은 31%에 불과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은 해고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대다수의 미국인은 해고까지는 필요 없다는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인 중 65%는 회사 측의 코로나 백신접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여전히 일자리 기회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르키나파소서 미국인 선교사 납치당해'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최근 외국인 대상의 납치 사건이 전무했던 부르키나파소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납치당했다"며 "전 세계 교회와 기독교단체, 선교사들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아프리카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무장괴한이 부르키나파소 중북부 알고의 홀리크로스교회에 침입해 선교사인 수엘렌 테니스(83) 수녀를 납치한 뒤 교회 소유 차량을 탈취해 도주했다.

한국오픈도어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지하디스트들이 자행하는 납치와 폭력, 학살이 아프리카 사헬(지도) 지대에 있는 니제르 말리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최근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국제오픈도어가 발표한 'WWL 국가별 보고자료'도 부르키나파소의 마을 직장 등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김경복 사무총장은 "부르키나파소에서 그동안 외국인을 납치한 사건이 없었다는 걸 감안하면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존 프레임(John Frame) 교수에 의하면 “코넬리우스 반틸은 칼빈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이며, 반틸의 변증학의 영향은 칸트가 철학계에 끼친 영향과 같다” 했다(“Van Til was the most important Christian thinker since the days of Calvin and his impact in the field of Apologetics was similar to that of Kant in non-Christian Philosophy”).

미국의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반틸이다. 반틸은 화란의 그루테가스트(Grootegast)에서 태어나서 1905년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왔다. 미국 미시간의 칼빈대학교와 칼빈신학교를 졸업하고, 프린스턴신학교(Th.M)와 프린스턴대학교(Ph.D)를 졸업했다. 그리고 1년간 목회하고 난 후 프린스턴신학교에서 변증학(Apologetics)을 강의하기 시작 했다(1928-1929 academic year). 곧 바로 메이컨이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설립하자, 반틸은 새로 시작된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가 되어 1929년부터 1979년까지 변증학을 가르쳤다(1972년 은퇴했지만 1979년까지 50년 넘게 가르쳤다).

반틸의 저서는 20권이 넘고 출판되지 아니한 많은 학문적 중요한 글들을 많이 남겼다. 반틸의 대표적인 저서는 Christian Apologetics,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The Defense of the Faith, Common Grace and the Gospel, and Christian Theistic Evidence 등이다.

반틸의 신학은 철저하게 칼빈주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 하에 있다. 반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신학자는 요한 칼빈이다.

그리고 반틸은 어려서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심의 화란 개혁주의의 전통과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심의 장로교 프린스턴신학(Old Princeton theology)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1936년 반틸은 자기 속한 Christian Reformed Church 교단을 떠나, 당시 메이컨에 의해 새로 조직된 정통장로교회(Orthodox Presbyterian Church)에 가입하여 평생 OPC 교단에 속하여 사역을 했다.

반틸의 신학은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influenced by the Dutch theologians Abraham Kuyper, 1837-1920 and Herman Bavinck, 1854-1921). 반틸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유일한 종교(God-revealed religion)이며, 칼빈주의는 그것을 가장 명료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표현한다(the clearest and most consistent expression of that religion)”는 이 카이퍼-바빙크 사상을 평생 동안 그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다.

철학적으로 반틸은 카이퍼의 칼빈주의 원칙(Kuyper's Calvinistic principles), 즉 “암스테르담(Amsterdam)철학” 또는 “칼빈주의 철학”으로 명명된 철학사상의 학파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이 “칼빈주의 암스테르담 철학”은 헤르만 도이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와 볼렌호브(Dirk Hendrik Theodore Vollenhoven, 1892-1978)의 저술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이들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법학과 철학과 교수이며, 또한 처남 사이이다.

그러나 반틸은 “암스테르담(Am-

(Self-contained and self-sufficient God)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논증에서 얻어진 신이 아니라 전제되어져야한다.

반틸은 만약 신 지식이 잘못된다면 모든 교리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역사적으로 체계화된 유신론적인 신존재 증명(Classical Arguments For The Existence Of God)은 논증의 가치가 없다고 믿었다. 반틸이 볼 때 이러한 신존재 증명에서 추론된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한 신(a god)일 가능성이 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42-43). 반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 할 수 없기(incomprehensible)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참된 지식임에 불구하고 단편적(partial), 역설적(paradox), 그리고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seeming contradiction).”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지식은 유추적(analogical)이며, 역설적(paradoxical)이다.

하나님께는 신비와 역설이 없지만(no mystery and no paradox) 인간에게는 존재한다(Defense of Faith, 61).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그러므로

조물이기 때문이다. 반틸의 인식론은 철저하게 계시의 존속이다. 성경의 진리는 경험보다 선행되며, 경험은 성경의 의의해 해석되어야한다. 성경은 그 자체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반틸의 인식론은 매우 권위주의(authoritarian)라는 비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권위주의임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반틸은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성경에 복종시켜야 하며, 그리고 성경에 의하여 자신의 경험이 해석되어야 한다(Defense of Faith, 125). 그러므로 반틸은 합리주의(rationalist) 인식론과 경험주의(empiricist) 인식론 모두 반대했다.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이성이(The Noetic Effects of Sin) 빛 된 진리가 되는 성경을 판단할 수 없다. 성경은 독자적인 권위(self-attesting authority)를 지니고 있으며, 성경이 인간의 모든 경험과 논리를 판단한다.

반틸의 인식론(epistemology)은 경험주의나 합리주의 모두를 반대한다.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없는 경험과 이성은 항상 모순에 빠지게 된다.

결국 반틸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공유지대 혹은 점점(common ground)이 있음을 부인한다. 결국 신자와 비신자의 중립지대(neutral ground)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변경가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을 접촉할 때, 성경의 하나님을 전제해야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 경험을 점점으로 삼게 되면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다.

반틸은 이성을 면도칼이라고 말했다. 이성 그 자체는 좋은 것이나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성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의 손에 의해 사용될 때 비로소 바로 사용될 수 있다.

비기독교인 일지라도 이미 그 마음에 신존재에 대한 내재적인 지식(Sensus divinitatis, “sense of divinity”)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제주의적인 도전을 해야 한다.

반틸은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합리주의 변증학(Rational Argument for the existence of God)보다는 칼빈의 계시주의적인 변증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을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켰다. 또한 프린스턴신학의 선배들의 증거주의(Evidentialism)에 근거한 찰스 하지, 혹은 워윅드의 변증학보다 더욱 성경적이며, 일관성 있는 칼빈주의적인 변증학을 발전시켰다. KHL0206@gmail.com



미국 개혁주의신학의 역사 (8)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 1895-1987)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sterdam)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암스테르담 철학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예를 들어 반틸은 도이베르트(Dooyeweerd)가 칼빈주의 철학에서 벗어나 비기독교적 사고에 더 많이 타협하였기 때문에 그를 비판하였다.

이시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온 우주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반틸의 인식론(Christian epistemology)은 기독교 형이상학(Christian metaphysics)에 근거한다. 반틸은 “하나님만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주관적으로 통제하고 계시를 알고 믿으면 된다. 인간의 지식과 인식은 하나님께 의존적이다.

인간의 지식과 인식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한도 안에서 수용적이고 재구성적(receptively recon-

전제주의 변증학, 기독교형이상학에 근거 철저한 계시 의존적 인식론 주장 성경이 인간의 모든 경험과 논리 판단...신자와 불신자 간 공유지대는 없어

반틸은 변증학을 “비기독교적 삶의 철학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기독교적 삶의 철학의 변모”로 정의했다(Van Til has defined it as “the vindication of the Christian philosophy of life against the various forms of the non-Christian philosophy of life”) (Apologetics, p.1).

반틸의 변증학은 전제주의(pre-suppositionalism) 변증학이다.

반틸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한 철학적인 논증에 의하여 그 존재가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자존적이며 자족적인

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든 논증은 모두 헛것”이다 주장했다. 인간의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제(presuppose)되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반틸의 사상과 신학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제는 매우 중요하며, 근본적이다.

반틸에 의하면 “신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반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완전히 알지 못한다. 우리의 지식은 오직 유추적(Analogical Knowledge)이다”(Defense of Faith,

structive)이지, 이성에 근거한 창조적(creatively constructive)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구성적(receptively reconstructive)이라는 말은 인간의 지식 활동은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시는 대로 그 계시를 나의 실존 속에 적용시킬 때에 그것이 바른 지식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은 종속적이다. 하나님의 지식은 결정적(determinative)이며, 그리고 인간의 지식은 부속적(subordinate)이다(Defense of the faith, 56).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시는 범위를 벗어 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셋새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새벽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622-2004, www.nys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침례: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646)270-9037, kimheo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	뉴욕부르를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94, www.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8-08 161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 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 1부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 (718)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ny.org, Tel: (516)387-9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East Meadow, NY 11558	뉴욕주천양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 1부예배: 오후 1:30 다리족동역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 Tel: (718)627-9037, kimheo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2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 1부예배: 오전 10:5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 전 영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Livingstonech.org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경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별세례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229-2858, www.nybasidchurch.org/V2/ 46-62 211 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15분 주일학교 오후 1:15분 청년예배 오후 3:12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욕예배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어린양개혁교회 담임목사: 유승례 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9-2013	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위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8, http://onnur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66-4040, www.kapco.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목), 오전 6:30(토)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월,목,토), 새벽, 다 사배 금요일 오후 7:30 금요전영모임: 매월 목(금) 오후 7:30 Tel: (6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목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la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오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동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하와이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church.org 2122 Melcal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한인교회 담임목사: 임한근 선교사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워시번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in.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58)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3)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5) "살리니"-이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이다... 이것은 앞에 언급된 죽음의 위협과 대조를 이룬다.

수 없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닫게 하시느니라"(요15:2).

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죄를 물리쳐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죄가 죽기도 전에 싸움터를 떠난다면 그는 자신의 의무를 온전히 수행한 것이 아니다(갈6:9, 히12:1, 고후7:1).

서 있다. 믿음의 성인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후에도 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처는 없으며,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죄를 계속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임 죄의 최종목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대적하는 것

있는 안락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저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죄는 항상 우리 속에는 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는 죄를 죽여야 할 책임이 있다.

통해 우리의 마음의 법과 싸운다(롬7:23).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갈5:17).

죄는 항상 극단을 추구한다.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과 같은 노선에서 가능한 한 더 큰 죄를 짓도록 유도한다.

2장 죄를 죽이기 위해 힘써야 할 이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3:5)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니 그 죄를 죽여야 할 의무가 있는 죄 우리는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죄

욕심이 추구하는 목표는 악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롬7:19).

죄가 승리할 때 인간은 강박해져서 파멸하게 된다(히3:13). 죄의 행동과 속삭임은 처음에는 매우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1절)요, 그분과 함께 죽은 자(3절)이며,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이며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이다(4절).

영을 대항하는 육을 가진 탓에 우리는 원하는 바대로 모두 순종하지 못한다. 이 '사망의 몸'(롬7:24)인 우리의 육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되는' 방법밖에 없다(빌3:21).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 속에 거하는 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죄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행동을 오염시키려고 발악을 한다.

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대적하도록 하는 데 있다. 죄의 거저됨 때문에 그렇게 된다. 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죄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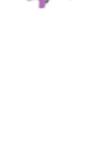
죄를 죽이기 위해 매일 노력하라. 그리고 항상 살아 있는 동안 죄를 이기는 삶을 목표로 삼으라. 하루라도 이 일을 중단하지 말라. 죄를 계속 죽이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죄를 죽여야 할 의무가 있는 죄 우리는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죄

우리는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죄

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yoonsuklee@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4) '누구를 위하여 쫓을 올리나?'

"저 분은 싱글이 아닌데 왜 참석하러 가지요?" 회문 중에 한 분이 재혼자의 참석에 대해 한 말씀입니다. 이 사역을 하다보면 자격조건에 대해 여러 말을 듣게 됩니다.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크리스천 모임' 으로의 전환

오랜 기간 저희 모임에서 주력한 대상은 성장기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30, 40대 한부모들이었습니다. 한부모들, 특별히 싱글맘에겐 자녀들이 노후보험이 될 수 있는데 반해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랄 가능성이 낮을 수 있기에 자녀들 앞에 반듯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자녀들이 올곧게 자라야 이 사회도 그만큼 밝아진다는 이유에서 그들 교육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다 성장했고 시간이며 경제적 여유가 생긴 50 플러스 한부모들과 결혼의 기회를 놓쳐버린 채 한 머리가 나가기 시작하는 분들의 참여가 높아져 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관심 갖고 돌아보니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성을 쉽게 만나 쉽게 헤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니다.

자연스럽게 이혼 후 순수(?)싱글의 불평이 있게 되자 의논 후 나온 결론은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크리스천 모임' 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닐지라도 외롭고 상처받은 마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 수 있는 그런 모임, 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범사가 새롭게 보이고 복된 일들도 만나게 될 터이니 틀리는 대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모임으로요.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부모 모임은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되신 분들이 주류가 되겠지만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를지라도 무거운 짐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종을 올리시는 인도자님들 되실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 집니다.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A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인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인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즈온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

일본이 낳은 위대한 성자가...

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영접...

였습니다. 그는 깊은 산골에...

가가와 도요히꼬가 기침하며...

가가와는 자기 가족밖에...

그러던 어느날 밤 잠을 이루...

지 못하며 각혈을 하고 고통...

가가와 도요히꼬는 죽을 작...

살면서 버려진 자들의 아버지...

로 성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가와 도요히꼬는 폐결핵으...

와 함께 살아가는 체험이 있어...

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 세상은 이미 2년이 넘게...

산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2022 국가 기도의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한 기도의날’ 기도대회

5월 5일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

2022 국가 기도의 날 남가주...

복음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정교도신앙회복운동, Jama...

강태광 목사 사회로 시작된...

기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

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 △최근...

이어 박성규 목사가 합심기도...

한편 국가 기도의 날 기도대...

본 기도회는 나성순복음교회...

(이성자 기자)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

뉴욕교협 주최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

뉴욕교협이 주최한 여의도순...

목사(순복음복미총회 총무),...

예배는 총무 임영건 목사 인...

김희복 교협회장은 “세계의...

양승호 목사는 이영훈 목사...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께 부...

한편 뉴욕교협은 5월 5일 오...

(유원정 기자)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2023년 50주년 준비 등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가...

△미주성결교회 50주년 각종...

19일 오전 10시(미동부시간)...

부총회장은 조승수 목사(뉴...

부총회장에서 총회장이 된...

3년 임기의 교단총무는 김병...

이대우 총회장은 △총회 집...

투표를 앞두고 논란이 있었...

회, 차세대 영어 목회가 함께...

또 북가주지방회가 추천하고...

지난 32회기 미주성결교회...

지난 32회기는 수입 417,397...

고시위원회 목사고시에 합격...

미주성결교회는 50년사 출판...

(정리: 유원정 기자)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음악예배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문화선교원 시전 주최... ‘QT를 통한 시창작’ 가을학기에 개강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민...

를 통한 시창작’ 제16기를 수...

이날 참여한 시인들은 최명...

또 초대시인으로 강태광, 김...

정종원 목사는 “사순절기간...

을 두는 시간을 갖게 되서 감사...

윤일흠 목사는 예수님의 무덤...

이인미 대표는 “시와 찬양이...

시전에서 개강하는 ‘QT를 통...

▲ 문의: (818)590-6469

(박준호 기자)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코로나시대의 선교전략' 주제

KWWMF 2022 LA서밋 컨퍼런스, 국가별 선교현황 발표

한인세계선교사회(KWWMF, 대표회장 강형민 선교사)가 주최한 KWWMF 2022 LA서밋 컨퍼런스가 '코로나시대의 선교전략'이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은혜 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선교현황에 대해 조사한 2022 국가별 선교현황 통계가 발표됐다. 56개국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42개국에서 설문조사에 응했다.

△먼저 기독교인 인구 조사에서 중국이 8천만명, 브라질이 6천 5백4십만명, 필리핀이 4천만명, 인도가 3천2백73만 572명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9백67만6천761명으로 집계됐다.

△기독교인 비율은 케냐와 온두라스가 45%, 브라질 31%, 탄자니아 27%, 과테말라 25%였으며 대한민국은 20%로 집계됐다.

△개신교회 숫자는 중국이 1백만개, 가나 11만개, 필리핀 9만1천개였으며 대한민국은 5만5천 787개로 집계됐다.

△목회자 숫자는 중국과 브라질이 50만명, 인도 32만2천736명이었으며 대한민국은 13만2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교회성장율은 터키가 30%로 가장 높았으며 코스타리카 19%, 알바니아 16%, 온두라스 15%, 그리고 헝가리와 쿠바가 각각 10%로 집계됐다.

△42개국을 대상으로 성경번역은 신구약 모두 100% 번역됐으며 찬송가는 83.3%가 현지어로 출판됐다고 보고했다.

△개신교 교단 숫자는 페루 500개, 볼리비아 370개, 브라질 200개, 아르헨티나 170개, 대한민국 131개로 집계됐다.

△신학교 숫자는 페루 500개, 온두라스 350개, 미얀마 300개, 브라질 250개, 파라과이 106개, 쿠바 100개, 중국 50개 등으로 집계됐다.

△기독교대학 숫자는 대한민



KWWMF 2022 LA서밋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국 72개, 브라질 14개, 케냐 13개, 가나 12개, 탄자니아 8개 등으로 집계됐다.

△기독교 초, 중, 고등학교 숫자는 브라질이 1,150개로 가장 많으며, 페루 500개, 대한민국 350개, 과테말라 25개 순으로 집계됐다.

△기독교 언론(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숫자는 대한민국이 47개로 가장 많으며, 탄자니아 24개, 페루와 미얀마 각 10개, 대만 8개, 헝가리 7개 순으로 집계됐으며 기독교라디오방송국은 베네수엘라 92개, 가나 70개, 인도 35개, 과테말라 25개 순으로 집계됐다. 기독교TV방송국은 온두라스가 52개로 가장 많았으며, 파키스탄 15개, 탄자니아와 케냐 각 10개, 인도 6개 순으로 집계됐다.

△기독교 병원은 인도 489개, 온두라스 210개, 과테말라 50개, 케냐 46개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인 선교사는 중국에 1,700명, 캄보디아와 필리핀 각 1,500명, 인도 471명, 터키 450명, 키르기스스탄 400명, 대만 350명, 몽골 300명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외국인선교사는 중국과 터키 2천명, 필리핀 1,500명, 방글라데시 400명, 알바니아 360명, 페루, 요르단, 파키스탄이 300명으로 집계됐다.

△선교지 한국선교단체 숫자는 대한민국 140개, 중국 50개, 필리핀과 키르기스스탄 30개, 이집트 29개, 요르단 24개 순으로 집계됐다.

다. 반면 외국선교단체는 터키 402개, 온두라스 150개, 알바니아와 방글라데시 60개, 필리핀 50개, 인도 48개 순으로 집계됐다.

△선교지 국가의 현지인 선교사 숫자로는 인도 1,600명, 중국 1천명, 온두라스 501명, 필리핀 200명 순으로 집계됐다.

△현지선교단체는 대한민국이 121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과 필리핀 50개, 알바니아 35개 순으로 집계됐다.

KWWMF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한 국가의 대표들의 참여가 미진했으며 연구조사 경험에 대해적으로 부족했다. △향후 각 국가에 대한 자료수집, 리서치 연구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KWWMF는 선교지 리서치 지역에 집중할 계획이며 선교지 현장에서 조사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국가별 선교사협의회는 '선교연구조사팀'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연구조사 할 것을 권고한다. △KWWMF는 국가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연구, 평가해 그 결과를 세계 선교계에 발표함으로써 세계 선교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서밋은 첫날 개회예배에 안영식 선교사(GMI)가 선교현황을 발표했으며 한기홍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둘째 날 저녁은 조영훈 선교사(코리아인터미션 대표) 선교보고했으며 송태근 목사(서울삼일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셋째 날 저녁집회는 김장생 선교사가 사역보고 했으며 권준 목사(사이에들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오전경건회는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고성준 목사(수원하나교회), 조지훈 목사(조이풀교회)가 인도했으며 황성주 박사(KWWMF부이사장), 선교전략가 루이스 부시 박사,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앤드류 김 선교사(GCA 국제대표), 전생명 선교사(FMNC), 최규남 박사(GMU총장), 박영량 선교사, 조용중 선교사(KWWMF 사무총장), 강대홍 목사(KWMA사무총장), 김인선 선교사(선교사지원재단)가 강의했다.

마지막 날 폐회예배는 김종국 선교사(KWWMF전임회장)이 설교했으며 LA선언문이 채택 발표됐다. <박준호 기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

세리토스장로교회 신년축복성회, 강사 허윤준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22일부터 24일까지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박규성 목사 사회와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첫날 집회는 김성훈 장로가 기도했으며 1부 찬양대가 찬양했다. 박규성 목사의 강사소개가 있는 후 강단에 오른 허윤준 목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시116:1-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허윤준 목사는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한 삶을 살았던 자 중에 다윗을 보게 된다. 다윗은 성경에 900번 이상 나오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다"며 "하나님 앞에 진실 되게 살려면 순진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목사는 "순진한 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다. 순진한 자는 첫째, 기도하기를 즐거하는 자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나와 상대방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리토스장로교회 신년축복성회에서 허윤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항상 인지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순진하게 사는 자는 은혜 갚을 줄 아는 자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은혜다. 예배하는 것이 은혜 갚는 길"이라 말했다. 허윤준 목사는 토요일 새벽 집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도의 삶(삼하5:10-12, 17-20), 토요일 저녁예배는 '믿음이 기적이 되는 교회(왕하3:9-20)', 주일예배는 '새침을 얻으리라(사40:26-4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교회 생일이며 우리 신앙의 생일'

사랑의빛선교교회 설립29주년 기념 감사예배

사랑의빛 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 설립 29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24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윤대혁 목사는 "사랑의빛선교교회가 29살을 맞았다. 2013년 부임할 때가 엊그제 같다. 하나님께서 파사데나 지역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나라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를 세우셨다. 창립 때부터 많은 성도들과 동역했다. 오늘날은 교회 생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생일이기도 하다.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달려가게 될 미래는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감사예배는 합심기도, 권

영흥 장로 기도, 시운성가대 찬양가 찬양했다.

이어 케익커팅 시간을 가졌으며 김재문 원로목사가 영상으로 축하했다.

윤대혁 목사가 '복을 주시며(창1:27-2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호산 목사가 특송했다.

이날 예배는 윤대혁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사랑의빛선교교회 창립29주년 예배에서 윤대혁 담임목사와 교인들이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있다

서부교계 기사판

2022 미주 목회자아버지학교 열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제15기 미주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5월 15일(주일), 16일(월), 17일(화), 22일(주일) 4일간 LA은누리교회(743 S. Grand View St)에서 열린다. 강사는 박세현 목사(15일), 국윤권 목사(16일), 이정연 목사(17일), 권준 목사(22일). 등록 마감은 5월11일(수)까지이며 등록비는 1인당 150달러.

▲등록문의: (310)896-6483 고광호 목사, (818)331-2481 성요셉 목사

비전케어 '사랑의 아이캠프'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VCS West 이사장 고정원)가 무보험자 및 저소득층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아이캠프'를 4월 30일(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개최한다. 조성진, 리사황, 케빈 잉 안과전문의와 제니퍼 김 검안의가 자원봉사로 섬긴다.

▲문의: (213)215-3420

제37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

남가주 발달장애인들의 제 37회 '사랑의 마당축제'가 5월 14일(토) 오전 10시부터 사우스 엘몬테 소재 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750 S. Santa Anita Ave., South El Monte)에서 개최된다. 사랑의 마당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미주북음방송과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남가주말알선교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28개 교회 장애인부와 22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18세 이전에 장애가 확인된 발달장애인, 장애인 가정,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4월 30일까지 5달러, 이후 10달러(티셔츠 제공)이며 주차비 별도다.

▲문의: (562)229-0001, (714)484-1190



고 유용석 장로 천국환송예배에서 유대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고 유용석 장로 천국환송예배

LA기윤실을 창립한 고 유용석 장로 천국환송예배가 나성결교회(담임 구영모 목사)에서 지난 16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구영모 목사 집례로 열린 이날 천국환송예배는 김영창 목사가 기도했으며 갓스패밀리교회 형제자매들이 조가를 불렀다. 이어 고인의 장남 유대호 목사(갓스패밀리교회 담임)가 '아름다운 죽음(전7: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대호 목사는 "고인은 97년을 사셨다. 차분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사셨으며 죽는 순간까지 모든 이들에게 분을 보이셨다"고 말했다. 그는 "아름다운 죽음은 첫째, 죽음 문턱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남은 식구들을 배려하는 것이다. 셋째, 남은 자를 축복하며 죽는 것이다. 넷째, 하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죽는 것"이라 말하며 "오늘 모인 모든 이들이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생각하며 살았으면 한다. 그리고 고 유용석 장로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동원 선교사와 박문규 대표(LA기윤실)와 손녀 손자의 조사가 있었으며 한기형 목사 축도로 마쳤다.

고 유용석 장로는 1925년 4월 7일 충남서산에서 출생, 1946년 전승희 권사와 결혼, 1976년 도미 1988년 나성결교회 장로 피택됐다. 1993년 LA기윤실을 창립했으며 2022년 4월 4일 향년 97세로 소천했다.

<박준호 기자>



KFAM 한인가정상담소, 제3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한인가정상담소 제3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지난 14일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 개최한 '제 3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에 약 140여명 참가자와 26개 후원

사가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 '사랑나눔'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조성된 후원금 5만6천 달러는 위탁가정을 돕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캐서린 염 소장은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한인 및 후원자 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더 가까이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의: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임직받은 항존직 임직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남가주동신교회 임직예배

장로 3명, 안수집사 25명, 권사 38명 임직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가 24일 오후 3시30분에 열려 임직했다.

본 교회 담임이자 KPCA 서중노회 노회장인 백정우 목사 집례로 열린 권사, 집사, 장로 임직임직식은 기도, 서약, 안수, 선포, 임직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임직패 권사가 기도했으며 총 38명이 권사로 임직됐다. 안수집사 임직 및 취임식은 홍준건 집사가 기도했으며 총 19명이 임직, 6명이 취임했다.

김현호 장로 기도로 시작된 장로 임직식은 3명이 장로로 임직됐다. 이어 손병렬 목사(본교회 4대 담임, 현 포항중앙교회 담임)가 축사했으며 송병주 목사(직전 서중노회장, 선한정지교회 담임)가 권면했으며 이영민 장로가 답사했다.

이영민 장로는 "성도들의 기도와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의 지도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백정우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한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직식 직전에 열린 예배는 노명수 장로가 기도했으며 본 교회 연합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김상구 원로목사(본교회 3대 담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행9: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상구 목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자리와 직분, 그리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 복음과 나라가 확장돼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나라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백정우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위드 코로나 목회를 말하다

교회들, 온·오프 융합 목회 시도

‘모이기에 힘쓰던 교회’가 코로나19로 사역 전반이 위축된 게 햇수로 3년째다. 우리나라 130년 개신교 역사상 처음 겪는 대혼란은 코로나 이후 목회 전략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목회 전략 수립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 목회’가 대세가 되리라 전망한다.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새로운 목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현시점에서 코로나 이후 온라인 사역을 중단하고 오프라인 사역으로 돌아가겠다는 단방향 전략은 한계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회 현장에서 온라인 목회에 적합한 교인을 위한 맞춤 교육과정을 만들고 젊은 세대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구역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목회적 시도를 하고 있다. 조성실 장로회신학대 객원 교수는 지난해 열린 한국실천신학회 정기 학술회에서 논문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하이브리드 목회 전략’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회 전반에 걸쳐 문명사적 전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대면 근무와 교육, 의료의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종교 활동도 예외일 수 없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미국 바나그를 사바나 킴벌리 연구 책임자는 코로나 이후 교회 사역은

교회들을 지역별로 구분해 조직한 소그룹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씽씽연동은 현재 12개까지 늘었고 400여명의 30-40대 교인이 참여하고 있다. 씽씽연동에는 자녀들도 함께 편성돼 젊은 세대 가족들이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 교회가 젊은 세대를 위한 구역을 별도로 만든 건 이 들끼리 모였을 때 모임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박요한 씽씽연동 담당 목사는 11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지난해 6월 총남의 한 농장에서 30-40대 교인 몇 가족이 체류 활동을 갔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 별도 구역을 구상하게 됐다”며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교회 마당

라며 “코로나 이후에는 학교 교회교육까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집중도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경험했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온라인을 활용한 성경공부와 모여서 하는 공동체·기도 훈련, 예배를 통해 그동안 만나지 못하면서 생겼던 신앙의 간극을 좁히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 한주교회(김태훈 목사)는 ‘코로나 종식=온라인 예배 종식’이란 공식을 깨뜨리고 하이브리드 목회에 나섰다. 교회는 ‘메타버스 참여형 설교’를 진행하고 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도 예배당 내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메타버스 공간

분당우리교회 교인 5000명대로 떨어져

29개 교회분립 후...이찬수 목사 “이제 꿈 너머 꿈꾸자”

경기도 성남 분당우리교회 등 29개 교회가 분립 후 교인 수가 5000명대로 떨어졌다. 이찬수 분당우리교회 목사는 24일 주일예배 설교 ‘매듭짓기와 새로운 임무’(수4:1-9)에서 “지난주 29개 교회 분립 후 세례교인 수를 집계한 결과 오전 몇 백명 정도가 됐다”며 “당초 분립교회로 가기로 했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분립교회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분당우리교회 교인 수가 2만 명을 넘어선

2012년 10년에 걸쳐 성도 1만-1만 5000명을 다른 교회로 파송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 17일 1차로 29개 교회가 경기도 수원, 용인, 하남 등으로 분립됐다. 연 말까지 2차로 11개 개척교회를 선정해 성도들을 더 파송한다. 그는 일반성도파송 운동 완료 후 안식년을 가진 뒤 성도 수가 5000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분당우리교회를 사임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올해 연말 이후까지 분당우리교회 성도 규모

가 5000명 이하로 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29개 분립 교회마다 성도들이 매우 많이 갔고 어떤 성도는 갔다가 자리가 없어 돌아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성도파송운동을 1차를 매듭짓고 새 임무를 위해 나아가자고 했다. 이 목사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꿈 너머 꿈을 쫓아 한다. 분립된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들이 이웃과 상생하고, 분당우리교회와 분립된 교회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꿈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금법 제정 저지” 국민행동, 텐트 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이달 안으로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차별금지법제정 반대국민행동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무기한 텐트 농성에 돌입하며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해당 법에 성정에 반하는 동성애 문화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데다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을 역차별하고 억압하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 단체 소속 일부 목회자는 삭발식을 통해 강력한 법 제정 반대 의사를 국회에 전했다. 이들은 “차금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짓밟아 버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해서라도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악법을 기어이 통과 시키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성평등에 따른 성별 혼인 가족제도 등의 헌법 가치와 실정법 질서가 파괴되더라도 차금법을 제정해 평등권의 보장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그런 평등권은 이미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정통합 “5-7년으로” 연장 움직임

담임목사 3년마다 재신임...기간 늘릴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통합 총회에는 ‘담임목사’와 ‘위임목사’ 등 비슷한 의미의 두 직제가 있다. 둘 다 교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목회하는 목사를 뜻하지만 신분의 안정성 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담임목사는 3년마다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임시직을 말한다. 반면 위임목사는 큰 문제가 없으면 재신임을 묻지 않고 정년까지 목회할 수 있는데 위임직을 거쳐야 자격을 얻는다. 위임직은 노회 소속인 목사를 지역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노회가 교회에 위임하는 예식이다. 위임직은 예정통합 교단법상 노회에 주도권이 있지만, 그 결정권은 전적으로 교회에 달려있다. 교회가 위임직을 열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담임목사의 목회를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교회와 담임목사 사이의 관계가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교단법상 담임목사는 3년마다 당회 결의와 제직회(직분을 가진 교인들의 회의) 출석 과반

수의 찬성을 얻은 뒤 노회에 연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사임해야 한다. 불안한 신분 때문에 소신껏 사역하기도 어렵다. 차질 교회에서 연임이 무산될 경우 교인들이 담임목사 지지와 반대로 갈리면서 분쟁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예정통합 교세 통계에 따르면 위임목사는 2997명, 담임목사는 5358명이다. 지역교회를 이끄는 목사 중 64.1%

가 위임을 받지 못한 임시직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단 내부에서도 담임목사의 불안한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예정통합 정치부가 연정협의회에서는 “담임목사들도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신임을 묻는 기간을 5-7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단 관계자는 13일 “현장에서 담임목사의 불안한 신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화하면 9월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해제, 성찬식 재개

2년이 넘도록 중단됐던 성찬식이 지난 17일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재개되고 있다. 25일부터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식사까지 허용되면서 성찬식을 막았던 모든 규제가 풀린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데 세례식과 함께 기독교의 중요한 의식 중 하나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예식이다. 성찬식은 교회의 자율적인 결정

에 따라 수시로 진행된다. 교회절기 때마다 하는 교회도 있지만 1-2주마다 성찬식을 진행하는 교회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는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성찬식을 긴 시간 중단시켰다. 종종 성찬용 빵과 포도즙이 담긴 ‘휴대용 성찬 키트’를 활용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성찬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함께 성찬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은 컸다.

에 따라 수시로 진행된다. 교회절기 때마다 하는 교회도 있지만 1-2주마다 성찬식을 진행하는 교회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는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성찬식을 긴 시간 중단시켰다. 종종 성찬용 빵과 포도즙이 담긴 ‘휴대용 성찬 키트’를 활용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성찬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함께 성찬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은 컸다.

성경공부는 온라인, 기도훈련은 만나서... ‘하이브리드 목회’ 시동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사역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의 40%가 이 같은 예배 형태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하이브리드 교회는 모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직접 참여시켜 그리스도의 지체로 기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코로나로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사역을 경험한 교회들이 시도하는 온·오프라인 융합 목회 전략도 눈길을 끈다.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김주용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교회 활동에 소홀해진 젊은 세대 교인들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구역인 ‘씽씽연동’을 조직했다. 구역이란

에서 바비큐 파티 같은 프로그램도 시도할 예정이며 앞으로 온·오프라인 교제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 성암교회(조주희 목사)는 담임목사와 부목사 등 교회 소속 목회자 4명이 각각 줌(zoom)을 활용한 성경 공부반을 개설했다. 각 공부반은 목사의 선택에 따라 성경 강해나 독서 클럽 등으로 운영된다. 공부반은 6주 동안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45분 남짓 줌에서 만나 성경을 배우고 함께 책을 읽는다. 대학 수강 신청처럼 교인들이 개설된 과목 중 원하는 공부반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수강생은 반마다 20명에서 60명까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조주희 목사는 “코로나 직후 온라인 성경공부반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갈 예정”이

에 입장한 뒤 설교에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김 목사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설교 중 교인에게 질문하면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기며 참여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설교에 반영해 예배를 진행하는 양방향 설교”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교가 끝나면 교인들이 앉은 자리에서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통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교인들과도 교제한다”고 덧붙였다. 가상과 현실을 융합한 방식이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교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미디어 교육을 통해 소외되는 교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김 목사는 “교육을 통해서도 습득이 어려운 교인을 위해서 미디어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기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전성): 오후 1:45 단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톤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영 아 예 배: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주)오후 8:00
새생명안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벽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화 교: 오전 10:20(주일)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일산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예 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주일)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8)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한국에서 팬데믹을 이제는 지나쳐가는 듯 모든 거리두기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이 자랑하던 K-방역에 대한 생각들이 엇갈린다. 초기 대응을 너무 잘해서 거의 코로나 무풍지대가 될 것만 같았던 그래서 교회의 모임도 회생을 감수해야했던 한국이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감염된 나라가 되었다. 나는 이 과정들을 지켜보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더욱 공감되고,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리라 하신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된다. 선교에서는 특히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지가 선순환과 악순환의 방향을 정하는 것 같다.

보조용으로 팔렸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전제품은 한국제품들이, 자동차는 일본제품들이 가장 신뢰받고 많이 팔리는 제품이 되었다. 이름을 부르기 어려운 현대자동차를 처음에는 아나운서들이 일본식으로 풀어 '하이엔다'라고 불렀던 그 이름의 자동차를 미리 돈을 내고 기다려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교회여 선교일등국이 되어라" "무너진 미국교회 중심에서 이젠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감당해야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세계선교를 위한 우렁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선교에서는 어떤가? 40년 전에 한국의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나와 세계선교의 중요한 세력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었다. 미국 교회에선 아직도 한국유학생을 자국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생각하고 지원하였다. 한국교회의 선교적 역량을 기대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6년이 되면서 매년 1000명 이상의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하던 기세가 꺾이고 선교사 증가 숫자 0을 기록하게 되는 한국선교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이후 둔한 증가세를 보이며 28,000여명을 기록하던 것이 2020년 팬데믹을 맞은 이후 23,000여명으로 감소했다는 발표를 듣게 되었다. 물론 조사방법에서의 조정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숫자가 감소한 것은 틀림없는 현상이다. 아직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개교회 파송이나 독립선교사들을 포함한다면 30,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지만 숫자의 감소는 명확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비취지는 조국 한국의 모습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40여년전에 미국에서 팔리던 모든 가전제품의 최상품은 일본제품이었고, 자동차는 미국제품과 유럽제품이었다. 소니 TV는 가장 비싼 제품이었고, 누구나 그 화면에 반하여 비싸도 사고 싶은 제품이었다. 당시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던 Zenith 제품은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한국의 LG에 매각이 되고 그 이름마저 사라져 버렸다.

년대까지 한국교회와 비서구 권교회에서 1만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조동진 목사의 발표를 허풍이 심한 과장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 함께 신년식사를 같이하던 조동진 목사는 한국교회 홀로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한국교회여 선교일등국이 되어라" "무너진 미국교회 중심에서 이젠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감당해야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세계선교를 위한 우렁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달랐다. 일본의 혼다 자동차가 4기통의 작은 사이즈로 미국에 수입되었을 때에 일반 사람들은 그 성능에 많은 회의를 가졌었다. 8기통과 6기통이 대세인 시대에 4기통의 작은 자동차가 미 대륙을 달릴 수 있을지 의심하고 주부들의 시장에 가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몇 년 후 2006년이 되었을 때 한국교회는 Target 2030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전역에 필요한 수요 선교사 숫자 46만명의 1/5을 감당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보여주었다. 당시 분위기는 "

미주 한인교회에서도 같은 추세를 보고 있다. 15세, 2세들의 "Silent Exodus"를 언급한 것이 벌써 오래전의 일이고, 감소하고 있는 미주 신규 유입인구로 추정할 때에 선교 자원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미주 한인교회에서 은퇴하거나 조기 은퇴하는 시니어들을 제외한 젊은 선교 자원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적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는 현재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최상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적어도 10년의 준비기간과 선교지에서의 경험들은 쉽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평가 절하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선교집회에서 비판적으로 현재 일하는 선교사들의 삼분의 일은 철수하여야 할 사람들로 삼분의 일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삼분의 일 만이 선교사다운 선교사이다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있다.

그러나 이미 선교사로 10년 이상을 일한 사람들은 처분해야 할 잉여물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교지로 보내셨다면 비록 효과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원을 가장 잘 쓰임 받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 귀한 인적 자원이 은사에 맞게 쓰임 받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선교사들의 은퇴연령에 대한 논의가 거세다. 본국에서의 은퇴연령이 있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규칙들이 많이 적용된다. 그러나 선교운동에서 실버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은퇴나 조기 은퇴한 자원들을 선교지로 초청하여 사역을 하도록 하는 실버선교 동원이 모든 단체들이나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선교현장에서 30년, 40년의 경험을 가지고 아직 건강이 유지되는 시니어선교사를 나이가 되었으니 물러서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선교현장의 경험이 없는 60대 선교사를 환영하면서, 현장 경험이 30년이 된 65세 선교사를 은퇴를 강요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맞지 않다. 그렇다고 모든 선교사들을 연령에 아무런 제한 없이 선교지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선교사 본인이 원하고 선교사역을 지속할 만한 건강과 역량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선교사의 현장에 남는 것이 다른 선교사들과의 협력에 지장이 없이 보완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니어선교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후배 젊은 선교사들이 활발하게 일하

후 생활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 열심을 내다보니 은퇴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파송하였기 때문에 은퇴연령의 선교사들이 늘고 있는 요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선교사의 은퇴에 관하여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다.

셋째는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큰 선교사 자녀들을 발굴하고 선교적 삶의 길로 안내하여야 한다.

선교사원으로 가장 잘 준비될 수 있는 자원은 선교사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선교지에 들어갔거나 태어나서 선교사 자녀로 세상의문화인(TCK: Third Culture Kid)으로 정체성이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부모의 문화, 선교지의 문화, 그리고 글로벌한 문화의 빛과 어둠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성장한 사람도 많고, 아주 부정적인 자세를 키우게 된 사람들도 많다. 그들이 어떻게 자랐거나 신앙이 분명히 있는 선교사 자녀라면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선교의 자원으로서 가장 적합한 자원임은 분명하다.

이들을 어려서부터 선교적 자원으로 그리고 글로벌리더십 자원으로 인식하고 키워 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선교사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개인 가정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키운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한다.

미국에는 2015년도에 3천백만명 정도의 합법 이민자와 일천이백만명 정도의 불법 이민자들이 있었다(<https://usafacts.org/data/topics/people-society/immigration/immigration-enforcement-immigrants/>). 2019년도에는 3만여 명의 난민들이 입국하였다. 2015년도에는 84,988명이 입국하였다.

(16면으로 계속)

기존선교사 정예화, 시니어선교사 발굴, 선교사자녀 지원 미국내 아시안교회 세우기와 타민족 교회와 협력 도모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18강 / 십계명, 법(출19-24장) (하)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정해진 내용대로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출22:1-15). 그냥 없던 것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분명히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실 것인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므로 하나님은 직접 감당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원칙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 하십니다. 소도 나귀도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도록 하라고 하십니다(출23:12). 이 역시도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당시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차지해야하고 살인은 불법이 아닌 '정당한 행위'이며 도둑질, 간음, 거짓말 등은 못하는 자들이 바보이지 당연한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

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합니다(출22:21-27, 23:6-9).

또한 가난한 자든 원수든 이미 앞서 말한 대로 '눈에는 눈'만 대가로 치루는 공평함이 있어야 합니다(출23:1-5). 어느 것 하나 그 당시에는 지켜지지 않던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출22:31)라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서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원 스토리 18강 / 십계명, 법(출19-24장) (하)

합니다(출23:20).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출23:21). 그러므로 그 사자는 하나님이며 성령님이며 구약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고 대적에게 대적이 되신다고 합니다(출23:22).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경계로 그어주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면 그들과도, 쫓겨난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출23:31-33).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섬긴다면 그들이 그들의 울무가 될 것입니다. 그 울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되어 앞서 말씀하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대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되시어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을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피(출 24:8)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마 26:28/막14:24/눅22:20/고전 11:25/히7:27, 9:12, 26, 10:2, 10/롬6:10/벧전3:18).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출24:1). 그리고 멀리서 경배한 후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출24:2).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출24:4,5).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

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받은 양푼에 담고 받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출 24:6,7).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준행하리이다'라는 백성들의 화답을 듣고 모세는 그 양푼에 담아 둔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출24:7,8).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이 '언약의 피와 함께' 이 '언약의 피를 통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언약'을 맺은 후 모세와 함께 올라온 자들과 하나님이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출24:9-11).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을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피(출 24:8)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마 26:28/막14:24/눅22:20/고전 11:25/히7:27, 9:12, 26, 10:2, 10/롬6:10/벧전3:18).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출24:1). 그리고 멀리서 경배한 후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출24:2).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출24:4,5).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

hfamilyfa@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안식년과 안식일

하나님은 6년 동안은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년째는 묵혀두어서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출 23:10,11). 이 얼마나 당시로는 말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법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말이 되지 않는 것인지는 앞으로 그들의 삶의 단면들을 통해서 계속 고발되어질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각종 법을 주셨습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출22:18)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출22:19) 하나님 외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 것이며(출 22:20)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그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출 23:13)고 못을 막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은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도록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우상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출23:23,24).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출 23:25-28).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적당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입니다(출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존귀하신 어린양(계5:12-16)찬89장

새노래는 모든 존귀가 어린양에게만 있음을 찬송합니다. 여기 "존귀(티멘)"란 삼위일체의 본체의 가치성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천사들이 봤던 어린양은 얼마큼 존귀하십니까? 첫째, 그는 상징으로 표현된 모든 보배의 실체이십니다(계 21:19-20). 하찮은 것이라도 그를 중심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골2:3). 둘째, 그는 에덴(기쁨)의 실체이십니다. 그가 행하신 창조와 구속은 즐거움으로 시작하고 즐거움으로 마칩니다.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즐거움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습니다(히12:2). 학계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어린양은 장차 임하실 만국의 보배이십니다(학2:7). 그 보배를 가진 우리는 모든 존귀를 그 분께만 돌려야 합니다.

화 영광의 원천이신 어린양(계5:12-16)찬358장

영광(독사)란 "무게가 풀리는 상태" 곧, 장엄, 위엄, 최상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천군천사의 찬양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첫째, 그분의 근본이 영광 자체이심을 강조합니다. 어린 양의 탄생 때 불렀던 천군의 찬송,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눅2:14)의 메시지는 여기 나온 영광의 찬송과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나타납니다. 둘째, 모든 시간은 그 분께 풀리게 됩니다. 모든 영광이 어린양에게서 나오고 그의 손아래 진행되고 그에게 돌아가는 것은 영적법칙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따른 삼중생활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살전5:16-17) 모든 마음이 주께 기울어지게 합니다. 셋째, 모든 활동 역시 그 분에게 풀려야 합니다(고전10:31). 성도의 모든 생활이 어린양에게 기울어질 때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수 복의 근원이신 어린양(계5:12-16)찬620장

여기 찬송, "울로기야"는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어린양에게 모든 찬송을 드림은 그들의 헌신이 고백으로 표현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표현된 찬송입니까? 첫째, 이미 받은 복이 모두 다 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계4장에 24장로가 자기 면류관을 보좌에 계산 분에게 던지는 것처럼(계4:10) 천상의 영물들이 자기자신을 그에게 최상의 태도로 드리는 모습입니다. 둘째, 이것은 어린양에게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옴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받은 모든 신령한 복은(엡1:3) 이런 고백을 통해 드러지고 또 다시 더 풍성하게 내게 임합니다. 셋째, 하늘의 고급천사들인 네 생물 역시, 어린양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신자의 최고백과 헌신의 고백은 모두 미쁘신 분에게 근거를 두었기에 효능이 일어납니다. 참된 고백으로 어린양을 찬양합니다.

목 힘의 원천이신 어린양(계5:12-16)찬360장

어린양만이 만물의 힘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세밀한 힘은 오직 그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린양을 통해서만 모든 방면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만물의 힘입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힘은 모두 어린양과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보이지 않은 신성과 만물 속에 숨겨있는 그 능력은 모두 어린양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롬1:20). 둘째, 그만이 육적 방면의 힘입니다. 만물의 왕관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체적 방면의 모든 힘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옴을 아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의 권위를 찬양합니다. 셋째, 또한 그는 영적 방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고전1:24).

금 만물의 화답송(계5:12-16)찬206장

천상의 영물의 찬송을 지켜본 만물은 4중 찬송(찬송, 존귀, 영광, 힘)이 어린양에게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화답했습니까? 첫째, 모든 복(찬송)이 그 어린양에게 속함을 고백했습니다. 피조물이 어린양과 연합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린양 죽음으로 새로워진 만물은 그 사실을 인정하며 그 찬양에 화답했습니다. 둘째, 또, 모든 존귀가 오직 어린양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식물의 꽃처럼 구속의 존귀함이 어린양에게 속함을 화답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나무의 열매처럼 모든 무게가 그에게만 풀림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어린양에게만 영광을 돌림은 영원세계는 어린양만이 왕이며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노래입니다. 만물의 관리자인 우리는 산제사의 삶에 항상 4중 찬송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토 네 생물의 아멘 찬송(계5:12-16)찬499장

천상의 천사들의 대표로 보는 고급 천사인 네 생물은 그 찬송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 그들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어린양에 대한 찬송의 메시지는 창조와 구속이 모두 그 안에 완성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어린양의 죽

음으로 완성되어 완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갖게 하셨습니다. 셋째, 그들은 성삼위와 연합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멘의 본은 그리스도인의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모든 약속과 일은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고후1:20) 어린양에 대한 아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기독교교육 (3)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미켈란젤로'

DBU는 1898년에 설립된 기독교 종합대학교입니다. 허버드대나 연세대 같은 학교들이 기독교 정신의 바탕 위에 세워져 처음에는 확고한 기독교 정체성을 띠다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점 세속화 되었습니다. DBU는 그런 학교들을 반면 교사로 삼고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다양한 노력 중의 하나가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성경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잠재력이 있음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잠재력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빛을 발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외면과 무관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대접 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해야 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필자가 가끔 사사기 6:11-12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I saw the angel in the marble and carved until I set him free." 이탈리아인으로서 16세기 최고의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천사가 있는 걸 보고 그 천사가 자유롭게 될 때까지 조각했다."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돌덩이로 볼 때 미켈란젤로는 그 속에 있는 멋진 석상을 보았던 겁니다.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의 미켈란젤로이시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자신의 외적인 상황을 보고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찾기 위해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고민과 망설임 속에서 보내며 방황합니다. 잘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을 무능력한 자로 패배자로 낙오자로 결정하고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삼상16:7).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삿6:12). 겁쟁이이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고 의심이 많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른 겁니다.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기드온을 봤습니다. 스스로를 약하고 작은 자로 평가절하한 기드온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한 기드온을 봤습니다. 동네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우상을 파괴한 기드온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 속에서 "큰 용사"를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봐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소용없는 것 무가치한 것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시지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고자 하는 의지와 공급해주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속에서 "큰 용사"를 보시고, 그 "큰 용사"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상을 파괴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시험에 응해주셨습니다. 군사를 모집하여 지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 속에 잠재력으로 있던 "큰 용사"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잠재력을 보십니다.

필자가 대학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1994년의 일이나 내일모레면 30년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학생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과 나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느낀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년 점점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의사나 행동 결정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요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는 신입생보다 그 부모들이 더 많이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입생들은 전공뿐만 아니라 수강과목조차도 부모의 의사에 따라 선택합니다. 그동안 봐왔던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해가 갈수록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외면만 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외국인 학생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생김새나 피부색을 보고 선입관 내지는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심지어 이민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배경이나 학벌이나 직업을 보고 그 사람들의 성품이나 미래를 판단하는 것을 종종 보고 듣습니다. 그런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에게 어떤 친구는 피하고 어떤 친구는 가까이하라고 조언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미켈란젤로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속에서 천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대리석 자체는 그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리석을 만들기까지 하시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십니다.
(16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교 펴기

콜롬비아

와나빠레보 인디언마을

와나빠레보 인디언마을은 이제 우물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 때나 물이 필요할 때 물탱크에 와서 수도도 떨어서 물을 받아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2km넘는 마을에서부터 언제 물을 보내줄까, 혹은 배관이 망가지지 않았을까, 모터가 잘 수리되었을까, 이런 걱정거리 없이 마을내의 물을 사용할 수 있음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우물을 잘 관리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들은 여전히도 어려운 것인지 쉽게 물을 받아쓰느라고 물탱크 주변이 망가지고 있는 것도 방치해 두고는 있지만... 하지만 시간을 갖고 교육과 인식의 개선을 이뤄 갈 수 있으리라 믿고, 빠른 시일 내로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물 급수대도 설치하고 학교 안에는 세면대와 화장실 배관 시설도 설치하려 합니다.

교실 내외장 공사

지난 번 건축한 교실들의 내외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우기철에 한 번씩 쏟아지는 폭우가 모래땅을 헤치고 들어가서 교실주변의 지반을 약하게 하기에 교실바닥과 주변에 시멘트 공사를 하고 내장공사도 잘 마무리하려 합니다. 와나빠레보 분교에 교실도 넉넉하고 전기와 물도 공급되어서, 올해는 시에서 인터넷 시설을 해 주겠다고 하니, 이제는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서 중학교 과정 인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며 희망합니다.

아무리 교육환경이 바뀌어도 교육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분교의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소명감과 아동들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갖고 맡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의류들과 장난감, 신발들을 우리 마을과 이웃 마을에도 나눠주고 축구 경기도 하고 이런 성탄잔치도 했습니다. 언어 문제로 성경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그래도 사랑과 나눔의 마음은 언어를 넘어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와이쥬 언어를 잘 배울 수 있고, 아이들도 스페인어 공부에 더 열심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초등학교 졸업식

유치원과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교의 졸업생들이 분교에서 함께 졸업식을 했는데, 마침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을 졸업선물로 줄 수 있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몇 퍼센트의 졸업생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될지요... 빠른 시일내에 분교에 중학교 과정이 허가되어, 모든 졸업생들이 삼급학교 진학을 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랜 동안 비대면 수업에 익숙한 아이들이 이제는 출석수업을 시작해서 저희도 야구야드파와 소아차 지역도 방과후 교실을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의 학교공부와 숙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으나 방과후 교실의 특별수업들과 청소년 성경공부, 영화관람 등의 활동을 통해서 교제와 나눔의 기쁨을 누립니다. 방과후 교실의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어머니들과 매달 기도모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가고 기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어머니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예배는 참석치 않아도 기도모임을 통해 말씀과 기도에 더 가까워지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기어준 복음을 통해 가족구성원, 가정구성원의 축복이 더욱 풍성해질 것을 믿으며 기



도하는 어머니모임이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울선교교회

바울선교교회는 지붕이 새고 배관의 문제로 보수공사를 하려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3층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상기온으로 비가 자주 오는데, 이번 공사기간동안에도 비가 거의 매일 내리면서 어려움이 많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건비와 자재비용이 많이 인상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증축공사는 교회 선교원을 운영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린이 사역을 점검하면서 해가 갈수록 사춘기연령이 낮아지면서 영적영역의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야구야드파에는 아이들을 돌봐줄 기관도 없기에 유아기 아동들을 말씀과 기도로 돌보며 아이들에게 깊이 뿌리내릴 복음능력과 하나님 사랑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물론 지역 카톨릭 교인들의 반대가 많을 것이지만 더 이상 늦추기만 할 수 없기에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시설을 갖추려 합니다.

지난 번 저희가 폐교를 청구하고 청년들을 위해 이용하고자 준비하는 것을 알고 저희의 사역을 부담스러워하는 카톨릭교회 측에서 자신들이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재정이 없다고 야구야드파 지역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허가해 주겠다는 구두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만일 지역위원회에 사용권이 위임된다면 저희가 다시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들과 청년들, 그리고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진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뤄가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혜정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missionerabigal@hotmail.com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52. 원만한 대화

가정에서 부부간 자녀간의 원만한 대화의 소통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게 되듯이, 대화가 멈추고 막히게 되면 가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또한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 동맥경화로 혈액순환이 막히게 되면 심장마비가 되어 죽음에 이르듯이 부부간 자녀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 대화의 소통이 막히게 되면 가정이 평탄할 수 없습니다.

대화는 독백이 아니라 쌍방간에 하는 것이므로 자기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말도 들어주는 것이 진짜 대화입니다. 상대방이 비록 그렇고 그

크워하지 않았습다. 부부간에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솔직하고 진실함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3)관용과 용납의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알지 못했던 남남이 만나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의견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침묵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의 원만한 대화는 서로 들어주고 이해하고 충고하고 보충하면서 무르익는 것입니다.

2. 자녀와의 대화

미국의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제대로 된 시간은 하루에 38초이며, 기타 형식적이고 사소한 시간까지 합

으로 대화합니다. (2)자녀들의 눈높이, 마음높이에 맞춰 이야기합니다. (3)대화시간에는 개그맨이 됩니다. (4)고민스러운 일일수록 내 문제인양 들어줍니다. (5)잘못된 행동은 올바르게 꾸짖어야 합니다. (6)어른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7)아무리 큰 문제라도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8)불만이나 꾸짖음 또는 부정적인 말을 자제합니다. (9)격려와 칭찬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줍니다. (10)자녀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3. 성경적 대화의 십계명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가정선교를 이루기 위해 부부간 지식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한 세상적인 대화법, 성공적 대화를 위한 세미나 등이 있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대화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잠25:11). 동문서답하듯 대화에 합당치 않는 말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화목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막9:50), 소금이

부부간 자녀간 원만한 대화소통이 모든 가정문제 해결

런 얘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늘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기술이 필요한데,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경청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1. 부부 간의 대화

부부간의 대화의 소통이 막히게 되면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혼사유의 가장 큰 이유도 부부간의 대화의 부족과 불통에서 기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원만한 3가지 대화법을 소개합니다.

(1)상호존중의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할 때 부부간의 원만한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2)솔직과 진실함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

한다면 고작 하루에 20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버지부재의 사회(Fatherless Society)', '대화부재의 가정(Talkless Family)'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입에서 '아빠, 바빠, 나빠'라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요즘 '자녀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빠빠빠의 관계'로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이 '바빠,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1세 아버지들은 흔히 2세 자녀들과 언어와 문화와 세대차이 때문에 자녀들과 대화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언어와 문화와 세대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심과 사랑만 있다면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 노력함으로 얼마든지 그 차이를 줄일 수 있고 대화의 소통도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녀와의 10가지 대화법'을 소개합니다. (1)기쁜 표정

음식의 맛을 내듯, 말로 서로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골4:6). (3)덕스럽고 선하고 은혜스러운 말만 합니다(엢4:29). (4)감사하는 말을 합니다(엢5:4). 원망 불평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살전5:18). (5)바른 말을 합니다(딤후2:8).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바른 말하므로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신뢰감을 회복해야 합니다(마5:37). (6)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니다(고후1:4). (7)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합니다(약1:19). 귀는 두 개인데 입이 하나인 것은 듣기는 속히 많이 듣지만 말하는 것은 신중하게 더디게 적게 말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전5:2). (8)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약3:10-11). (9)칭찬의 말을 합니다(롬14:18). 내가 칭찬을 하면 상대방도 칭찬을 되돌려줍니다. (10)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합니다(민14:9).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막11:23).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GRACE THEOLOGICAL SEMINARY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logo, a list of 5 benefits of online programs, enrollment dates for 2022 (May 7th), and details for various courses including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ntact information for Dr. Drew Flamm is provided.

현대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 사해 두루마리!

TGC, '존 쿨리드 구약학교수가 말하는 사해 두루마리 발견, 그 후 75년' 보도

오늘 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뜨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4개의 사해 두루마리, 적어도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사본 판매 중 개인이나 단체가 교육기관이나 종교기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Raiders of the Lost Ark)나 엘리자베스 피터스(Elizabeth Peters)의 소설이나 나올 법한 소리다. 그러나 이 광고는 1954년 6월 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실제 광고다. 이 광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리아 정교회 수도원의 수장 사무엘 대주교가 올린 광고였다. 그는 칸도(Kando)라는 이름의 베들레헴 골동품 상인에게서 그것들을 샀으며 이 상인은 1947년에 사해 인근 동굴에서 이 사본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베두인 목동에게서 차례로 사들였다.

1940년대 후반 아랍-이스라엘 전쟁으로 사무엘 대주교는 4개의 사해 두루마리를 뉴저지에 있는 시리아 교회로 비밀히 들여와서 월스트리트저널에

유대 사막에서의 이 두루마리의 발견은 곧 일반에 알려지게 됐고, 그 지역의 다른 동굴들을 조사하기 위한 수많은 탐험으로 이어졌다. 1947년부터 1956년까지 특정 동굴(1번부터 11번 동굴로 표시됨)에서 900개 이상의 사본(대부분 단편본)이 산출됐으며, 이 사본들은 사해 두루마리로 알려지게 됐다.

두루마리들은 대부분이 가죽이지만 일부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지만 일부는 아랍어로, 일부는 헬라어로 기록돼 있다. 사해 두루마리에는 3가지 유형의 사본이 있다. △히브리어 성경문헌 △제2성전기(c. 500 BC-AD 70)의 비정경 종교문헌 △종파문헌.

고고학자들은 최종적으로 에스터를 제외한 모든 구약성경을 보여주는 사본 이백사십 편을 발견했다. 제2성전기 문헌에는 토비트 같은 외경과 에녹

같은 위경이 포함돼 있다. 종파 문서에는 전쟁 두루마리와 성전 두루마리(Temple Scroll) 같은 주요 문서가 포함된다. 올해는 사해 인근에서 최초로의 사해사본이 발견된 지 75년

째 되는 해다. 저명한 고고학자 올브라이트(W. F. Albright)는 사해사본의 발견을 “현대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불렀다. 그의 진술은 최소한 다음 3가지 이유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존 쿨리드 구약학 교수(the Chancellor's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는 말해

광고를 낼 때까지 그곳에 보관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이가엘 야딘(Yigael Yadin)은 미국 에이전트를 통해 이스라엘 국가를 대신해 네 권의 두루마리를 구입했다. 이 두루마리들은 이사야서의 완전 필사본, 하박국서 주석, 공동체 규칙서라고 하는 종파적 저작, 그리고 창세기 외경이라고 하는 아람어 문서로 구성돼있다.

베두인 목동은 두루마리를 3개 더 발견했고, 그것을 살라히(Salahi)라는 두 번째 베들레헴 골동품 상인에게 팔았다. 1948년 성서고고학자 이가엘 야딘(Yigael Yadin)의 아버지인 수케닉(E. L. Sukenik) 교수가 이것을 구입해 예루살렘의 히브리대학교에 보관했다. 그 세 문서는 이사야서의 두 번째 사본과 전쟁 두루마리(War Scroll), 그리고 감사의 찬양 두루마리(Thanksgiving Scroll)로 구성돼있다(The Dead-Sea-Scroll Discovery-75Years Later).

준다. 1. 사해사본은 현존하는 두 번째로 오래된 성경본문을 담고 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케테프 힌

놈(Ketef Hinnom)에서 발견된 기원전 7세기 후반의 작은 호신부(amulet)에서 발견된 것으로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이 들어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완전한 사본은 1008년의 레닌그라드 사본(Leningrad Codex)이다. 사해사본의 일부 문헌은 그 사본보다 1200년 앞선 것도 있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

졌는지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이라 불리는 이 연구를 통해 사해사본의 성경본문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사이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이 입증

됐다. 차이점의 대부분은 필사자의 오류로 인한 “만약” “그리고” “하지만” 등의 미미한 단어들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신뢰성과 그의 백성을 위해 그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역을 보여준다.

2. 사해사본은 제2성전기의 유대인의 관습을 기록하고 있다.



사해 근처의 쿠파란 유적지에 위치한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교 종파가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고 필사했을 것이다. 종파 두루마리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종교적 반대자들을 징죄했던 이른바 다마스쿠스 문서가 포함돼 있었다. 이 문헌은 당시 유대인 종파 사이에 있었던 더 다양한 신학적 입장에 대한

신약성경 시대의 배경과 환경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많은 단편들이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다른 동굴에서 더 많은 사본들이 산출됐다. 예를 들어 와디 무라 바 아트(Wadi Murabba'at) 지역에서는 소선지서 전부가 포함된 두루마리가 발견됐다.

2021년도에도 이스라엘 유물관리국은 수십 개의 새로운 사해 두루마리 단편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문서에는 구약의 스가랴서와 나훔서의 헬라어 문장이 들어있기도 한다. 이 중요한 작업들은 계속되고 있다.

1970년대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레이첼 킹(Rachel King)이라는 구약학 교수가 있었다. 1940년대 후반에 그녀는 사해사본의 발견이 발표됐던 성서학회의 연례회의에 참석했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해사본이 발견됐다는 발표가 났을 때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북도에서 포옹하고 춤추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축하할 가치는 7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있다.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3. 사해사본은 신약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해 근처 동굴에서 신약성경 문헌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신약성경 저자들은 쿠파란 공동체의 종파 저작물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종파문헌들 중 많은 부분이

3개 유형: △히브리어 성경문헌 △제2성전기 비정경 종교문헌 △종파문헌

- 현재에도 유효한 이유: ① 현존하는 두 번째로 오래된 성경본문 ② 제2성전기 유대인의 관습 기록 ③ 신약성경의 세계 이해에 도움

교회선교의 선순환

(13면에서 계속)

해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살 길을 찾아 나선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타 종교인들이 미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것을 보며 생각하였다. 만일 선교사 가정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준다고 하면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장차 대학교육들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이다. 만일 선교사 100가정을 미국의 3,500여 교회에서 순차적으로 합법적인 초청을 하여준다면 선교사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즈음에

는 많은 학비 지원을 받으며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천달러 정도를 후원하고 있는데 선교사 자녀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선교비를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물론 미주에 불법적으로 남아있는 많은 성도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장기적인 확장을 꿈꾸는 일이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타 종교인들이 미국을 채워가는 것보다 선교사의 가정들이 그리고 글로벌리더로 자라는 그들의 자녀들이 미국에 남거나 선교지로 돌아가는 일은 얼마나 현실적이고 아름다운 꿈인가.

넷째는 2세 목회자들과 소통의 창구를 확대하고 그들을 통한 통합적인 Asian church, multi-national church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많은 2세들이 한인교회를 떠났다. 물론 신앙을 떠난 젊은이들도 많지만 신앙을 유지하지만 문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 이들은 주로 미국 안에 Asian 중심의 Asian Cultural Church를 세워나가고 있다.

이들이 미국 사회 직장에서 능력이 없거나 비주류로 남아있다는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 좋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교회는 문화적으로 더 편한 영아픈 아시아인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이 한인중심으로 선교운동을 계속해 나가거나 협력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끊임없는 대화의 시도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다른 민족들의 교회들이 선교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함께 일하도록 길을 만들어야 한다.

미주한인교회의 역할은 미주의 다양한 민족들에게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길을 안내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최근에 국제적인 기독교단체들에 한인2세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제로잔운동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오 목사는 40대에 국제기구의 대표로 추대 받았다. 최

근에 미국복음주의연맹(NAE)은 월터 김 목사를 대표로 추대하였다. 미국내 보수적 기독교 대표기구 가운데 하나인 TGC(The Gospel Coalition)도 한국계 대표를 선임하였다. 이렇게 주류기독교의 리더십에서 섬기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은 한 국교회와 한인기독교의 위상을 그만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아직도 비주류로 변두리에 남아있는 타 민족교회들을 격려하고 도와서 함께 세계선교를 위해 나서게 하는 것은 분명 미주한인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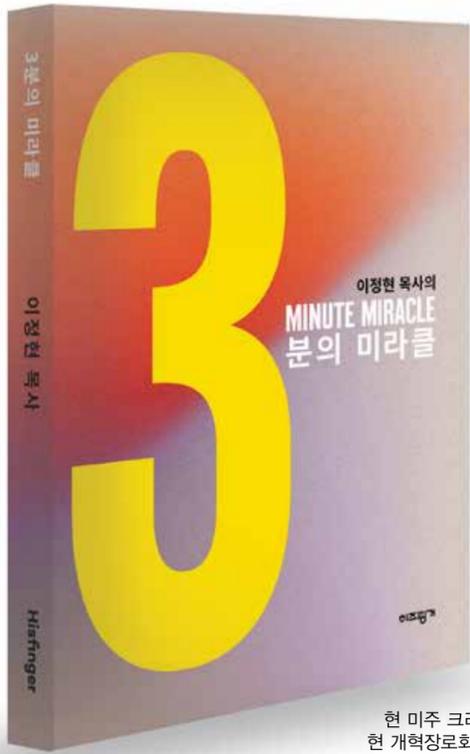
dr.yongcho@gmail.com

기독교 교육

(14면에서 계속)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안다면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면 기죽지 않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실패나 실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실수나 실패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미켈란젤로이십니다.

jonk@dbu.edu



3분의 미라클
이정현 목사의
MINUTE MIRACLE
3분의 미라클

3분의 미라클

하나의 QT 인 동시에 짧은 설교입니다.
평이한 것 같지만 깊은 묵상을 거친 것이기에
말씀에 나뭇 깊이와 있고 통찰력을 주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평신도 뿐 아니라 설교자들에게도 지혜와 통찰력을 주는 예화와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 이정현 교수
현 미주 크리스천 신문 상담 칼럼 담당
현 개혁장로회 대학 및 신학 대학원 총장

개혁주의 신학에 바탕을 둔 성경적인 그의 메시지는 쉬우면서도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시원함을 주는 생수 같아요. - 레저월드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신도들에게 유익하고 목사님들도 예화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미주크리스천 신문 편집장 유원정

탁구회원들의 단체 카톡방에 올린 3분의 미라클은 무더운 여름철의 냉수처럼 목사인 저에게도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 탁목동 회장 고신 최동석 목사

3분의 미라클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한 장씩 읽을 때마다 아멘이 절로 나오고 제가 믿는 믿음과도 너무 일치 됩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는 해답을 주고 있어요. - 찬양 반주자 최영애 권사

구입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 온라인 : WWW.HISFINGERMALL.COM / 주문처 : 이희은 1360 SHADOWBROOK TERRACE, HARBOR CITY CA 90710 / E-mail : TLspc0316@gmail.com/ Tel: (310) 749-4756

Hisfinger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시 8:3) ...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요 8:6)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가격 : 30불 (책값 및 발송비 포함) / 선물용 4권을 사시면 100불(발송료 무료)
출판상담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